第 50 號

第171回 臨時會
第172回 臨時會
第173回 臨時會
第174回 第2次 定例會

議政報告書

(2008. 7. 8 ~ 2008. 12. 24)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目　　次

第171回 臨時會 …… 3

第172回 臨時會 …… 35

第173回 臨時會 …… 91

第174回 第2次 定例會 …… 167

第171回 臨時會

Ⅰ. 集會 및 議事日程 ····· 8
1. 集　會 / 8
2. 會期 및 開議日數 / 8
3. 議事日程 / 9

Ⅱ. 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 14
1. 接受現況 / 14
2. 處理現況 / 15
3. 主要議案 處理內容 / 18
4. 繫留議案 / 21

Ⅲ. 市 政 質 問 ····· 22
1. 質問現況 / 22
2. 質問內譯 / 23

Ⅳ.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 27
1. 請　願 / 27
2. 民　願 / 29

Ⅴ. 5分 自由發言 現況 ····· 30

Ⅵ. 本會議 傍聽 現況 ····· 33

開　會　辭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범일 시장님과 신상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5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오늘 제17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의회 운영에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5대 의회 전반기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장경훈 전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고유가와 고물가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시기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의회가 더욱 전문화되어서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여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조언과 비판을 계속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민선 4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대구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와 같은 정책들은 우리 대구가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대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교육목표로 삼는 각종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을 글로벌지식경제도시 대구의 내일을 여는 희망의 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 더욱 능동적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역 각계각층의 힘을 하나로 모아 살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부와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간 개최되는 제171회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추진해 온 시정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시정 시책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절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마에 대한 풍수해 예방대책과 시민 건강을 위한 방역대책 등의 추진에 철저함을 기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年 7月 8日

大邱廣域市議會 議長 崔 文 贊

Ⅰ. 集會 및 議事日程

1. 集　會

○ 집회요구자 : 김덕란 의원 외 9인

○ 집회공고일 : 2008. 6. 30

○ 개　회　일 : 2008. 7. 8

○ 폐　회　일 : 2008. 7. 24

2. 會期 및 開議日數

가. 會期 : 17일(누계 : 294일)

나. 開議日數

○ 본회의 : 3일(누계 : 63일)

○ 위원회

區 分	計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小計	運營	行政自治	敎育社會	經濟交通	建設環境	豫算決算	其他
今 回	24	19	1	5	4	4	5	4	1
累 計	349	295	20	66	64	61	84	31	23

3. 議事日程

가. 本 會 議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7. 8(화) 10:16	1. 제17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次	7. 9(수) 10:05	1. 시정에 관한 질문 2. 5분 자유발언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次	6.27(금) 10:00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 200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만성후유증진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委 員 會

○ 運營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7.17(목) 14:00	1.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소관 2.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行政自治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7.10(목) 10:00	1.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정책홍보관실 소관
2次	7.11(금) 10:00	1. 업무보고의 건 - 기획관리실,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3次	7.15(화) 10:00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 기획관리실, 소방본부, 감사관실, 정책홍보관실 소관
4次	7.16(수) 10:00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
5次	7.17(목) 10:00	1.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敎育社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7.11(금) 10:05	1. 업무보고의 건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次	7.14(월) 10:06	1. 업무보고의 건 -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3.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만성후유증진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次	7.15(화) 10:06	1. 업무보고의 건 - 대구의료원 소관 2.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4次	7.16(수) 10:05	1. 업무보고의 건 - 교육청소관 2. 200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經濟交通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7.11(금) 10:00	1. 업무보고의 건 - 기업지원본부, 신기술산업본부 소관
2次	7.14(월) 10:04	1. 업무보고의 건 -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지하철공사 소관
3次	7.15(화) 10:02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기업지원본부, 신기술산업본부 소관
4次	7.16(수) 10:06	1.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 建設環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7.10(목) 10:10	1. 업무보고의 건 - 환경녹지국, 환경시설공단 소관
2次	7.11(금) 10:08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본부, 도시공사 소관
3次	7.14(월) 10:08	1. 업무보고의 건 - 건설방재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4次	7.15(화) 10:09	1. 2008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환경녹지국, 도시주택본부 소관
5次	7.16(수) 10:09	1. 2008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7.18(금) 10:10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次	7.21(월) 10:08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3次	7.22(화) 16:24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4次	7.23(수) 10:17	1. 2008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1世界陸上選手權大會支援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7.17(목) 11:00	1. 업무보고의 건 -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Ⅱ. 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1. 接受現況

○ 機 關 別

區 分	計	議會				大 邱 廣域市	敎育廳
		小計	議員	議長	委員會		
今 回	15	5	1	4		8	2
累 計	339	152	67	69	16	161	26

○ 種 類 別

區 分		計	條例				豫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小計	制定	改正	廢止				
計	今回	15	7	1	5	1	2	1		5
	累計	339	173	42	122	9	23	45	8	90
議 會	今回	5								5
	累計	152	41	12	29			20	8	83
大 邱 廣域市	今回	8	6	1	4	1	1	1		
	累計	161	116	27	80	9	13	25		7
敎育廳	今回	2	1		1		1			
	累計	26	16	3	13		10			

2. 處理現況

가. 總 括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5	14	11	3			1
	누계	339	337	253	76	1	7	2
조 례	금회	7	6	5	1			1
	누계	173	171	101	63	1	6	2
예산·결산	금회	2	2		2			
	누계	23	23	13	10			
도시계획	금회							
	누계	7	7	7				
동의·승인	금회	1	1	1				
	누계	45	45	44			1	
건의·결의	금회							
	누계	8	8	7	1			
규 칙	금회							
	누계	6	6	4	2			
기 타	금회	5	5	5				
	누계	77	77	77				

나. 本 會 議

區 分		附 議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4	14	11	3			
	누계	329	329	253	76			
조 례	금회	6	6	5	1			
	누계	164	164	101	63			
예산·결산	금회	2	2		2			
	누계	23	23	13	10			
도시계획	금회							
	누계	7	7	7				
동의·승인	금회	1	1	1				
	누계	44	44	44				
건의·결의	금회							
	누계	8	8	7	1			
규 칙	금회							
	누계	6	6	4	2			
기 타	금회	5	5	5				
	누계	77	77	77				

다. 委 員 會

區 分		回附							處理					繫留
		計	條例規則	豫算決算	都市計劃	同意承認	建議決議	其他	計	附議		不附議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0	7	2		1			9	6	3			1
	누계	235	179	23	7	26			233	150	75	2	6	2
운영	금회													
	누계	24	24						24	18	6			
행정자치	금회	4	3			1			4	4				
	누계	66	54			12			66	51	13		2	
교육사회	금회	2	2						2	2				
	누계	48	42			6			48	34	12		2	
경제교통	금회	1	1						1		1			
	누계	32	25			7			31	15	14		2	1
건설환경	금회	1	1											1
	누계	41	34		7				40	19	19	2		1
특별	금회	2		2					2		2			
	누계	24		23		1			24	14	10			

3. 主要議案 處理內容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04	2008년도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예결위(교사)	○기정예산액 : 1,783,747백만원 ○추경예산액 : 2,016,839백만원 ○증감액 : 233,092백만원	수정 (7.16)	수정 (7.24)
2905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사회	○2008.9.1.자 개교하는 초등학교 2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기존 학교 중 도로명 주소로 미표기된 학교의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원안 (7.16)	원안 (7.24)
2906	2008년도대구광역시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시장	예결위(공통)	○기정예산액 : 4,243,500백만원 ○추경예산액 : 4,517,840백만원 ○증감액 : 274,340백만원	수정 (7.16)	수정 (7.24)
2907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자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4,801명을 4,66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3,197명을 3,065명으로 함	원안 (7.17)	원안 (7.24)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08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자치	○시 본청 조직을 1실 6국 1단 4본부에서 1실 9국 1단 1본부로 개편함.	원안 (7.17)	원안 (7.24)
2909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자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쓰레기 및 폐수처리 등의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원안 (7.17)	원안 (7.24)
2910	2008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장	행정자치	○엑스코 야외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舊 무역회관부지를 엑스코에 현물출자하여,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이전 완공 목표로 전시컨벤션시설을 확장 건립 추진	원안 (7.17)	원안 (7.24)
2911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시장	교육사회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을 부상자의 향후 진료비로 선지급 조치 완료하여 폐지함.	원안 (7.17)	원안 (7.24)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12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경제교통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용어를 변경함.	수정 (7.16)	수정 (7.24)
2914	제171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본회의	○회기 - 2008.7.8~7.24		원안 (7. 8)
291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나종기 의원 외 6인	본회의	○출석공무원 - 시장		원안 (7. 8)
2916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의장	본회의	○운영위원회 - 나종기, 정해용 유영은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김의식, 정규용 유영은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 류병노, 나종기 의원 ○경제교통위원회 - 이동희, 양명모 의원 ○건설환경위원회 - 이경호 의원		원안 (7. 8)
291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본회의	○서명의원 - 차영조, 장경훈		원안 (7. 8)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본회의	○위원장 - 김덕란 의원 ○부위원장 - 김충환 의원 ○위원 - 나종기, 권기일 전성배, 이경호 박돈규, 유영은 류병노 의원		원안(7. 9)

4. 繫留議案

議案番號	議 案 名	上 程 日		繫留日	繫留事由
		委員會	本會議		
2737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		2007.8	
2913	대구광역시경관조례안	건설환경		2008.7	

Ⅲ. 市 政 質 問

1. 質問現況

가. 質問議員數 : 1名(累計 : 75名)

나. 質問件數

○ 對象機關別

區 分	計	大邱廣域市	敎 育 廳
금 회	2	2	
누 계	129	122	7

○ 分 野 別

區 分	今 回	累 計
계	2	129
일 반 행 정		14
문 화 체 육		8
교 육		7
경 제 · 산 업		26
환 경 · 녹 지	2	7
상 · 하 수 도		3
보 건 · 복 지		4
교 통		16
도 시 계 획		14
건 설 주 택		24
소 방		1
기 타		5

2. 質問內譯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나종기	1.달성공원의 리모델링과 그 인근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달성공원은 훌륭한 시설물이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서구 비산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어 그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첫째, 달성공원의 출입문은 달성공원 동쪽인 중구 달성동 방면 한곳에만 설치된 관계로 비산 2, 3, 4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바로 앞에 훌륭한 공원이 있어도 접근하기가 어려움. 또한 달성공원 외곽에 있는 토성의 관리방식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예컨대, 달성공원 토성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진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성 몇 군데에 철제펜스로 막아놓았음. 이는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달성공원과 그 주변에 대해서 시의 일관된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며, 다행히 내년 예산에 달성사적지 정비계획 용역비 2억 원이 국비로 산정이 되어 달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 거냐 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 내년에는 수립될 걸로 보고 있음. 그래서 내년 국가에서 사적지 정비계획 용역을 줄 때 우리 시에서도 동물원 문제라든지 그 주변문제에 대해 큰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문제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달성공원 인근지역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달성공원은 63년 국가문화재인 사적 제62호로 지정되었으며 달성공원 주변 지역은 그동안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는 등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서구 비산 2, 3, 4동은 현재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1개소와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지구 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1개소는 건축물 고도제한 10m 이내에 포함되어 사실상 공동주택방식의 재개발은 어렵다고 보여짐.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나종기	것으로 보이며,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실질적인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토성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펜스를 철거하는 등의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문화재보호법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근주민들이 달성공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통로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출입통로 설치는 서구 비산4동 대성초등학교 인근과 비산 2, 3동 주민자치센터 인근 지역 두 군데가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토성 주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철제펜스를 철거할 의향은? 2008년 6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문화재청의 고시에 의해 건축물의 고도제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지구 2개소인 비산 3지구에 238억원, 비산 4지구에 203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도로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택개량은 비산 3지구는 52%, 비산 4지구는 74%를 추진하였음. 그러나 지역주민의 지구 해제 또는 유형변경 민원이 있어서 시에서는 현지개량지구의 지구실태조사 분석 등 세부적인 관리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나오고 또 내년에 달성정비계획 용역이 들어갈 때 이 주변지구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변정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서구지역의 공원부족, 특히 원대동 지역에 공원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마 여유부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쌈지공원이라든지 또는 학교공공시설 담장허물기, 또 시에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그린파킹 이런 사업들을 원대동 지역에 좀 집중하도록 검토를 하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나종기	한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달성공원 주변 제1구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10m 이하이고 그 구역도 달성공원에서 이격거리 100m 인접지역은 12층까지밖에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을 생각하는 민간건설시행자가 선뜻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나타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건설업체에서 개발이 어렵다면 공공건설업체에서 공영개발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적극적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달성공원은 현재 우리나라 토성 중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영구히 보존돼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주변도로에서 토성 상부의 높이 차이가 20m 정도로 경사도는 60도가 되어 이러한 지형여건상 안전문제 등으로 출입통로의 추가설치는 현재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계단 등의 다각적인 설치방안을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음. 철제펜스 철거는 공원 조성 시 설치된 블록담장이 노후되고 붕괴위험이 있어 미관과 안전을 고려해서 총 길이 1,095m 중에서 513m만 철제펜스로 교체한 바가 있으며,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토성 보호와 경사도 등 이런 지형여건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임을 감안할 때 철제펜스 철거는 어려움. (환경녹지국장)
	2.서구의 공원 및 완충녹지와 관련 대구시에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서구지역의 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과 관련, 2007년 말 현재 대구시 도시공원은 총 686개소로서 8,466만㎡이고 시설녹지는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나종기	등 360여 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도 30여 개의 공원이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공원들은 도시 정주환경의 질을 높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정서순화에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공원과 녹지조성의 훌륭한 성과가 서구에는 그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즉, 대구시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이 25㎡ 이상인데 반하여 서구는 2㎡도 되지 않아 대구시 구·군 중에서 가장 적은 실정이고 특히, 서구 중에서도 원대동 지역은 공원이 전무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공원과 관련한 행정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대구시에서는 서구 원대동의 공원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05개소에 647만㎡이며, 이 중 서구는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17개소, 소공원 1개소 등으로 공원은 총 23개소에 212만 7,000㎡이고 시설녹지는 5개소에 66만 7,000㎡임. 서구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구의료원 부근 외 3개소에 완충녹지를 개선하고 있고 평리공원 등 3개 공원을 재정비중에 있으며, 특히 공원이 없는 원대동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학교 등 공공기관 담장허물기사업과 쌈지공원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 달성초등학교 등 5개소에 8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10년 단위로 도시지역 내에 있는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서구 등에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및 녹지공간 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도시재정비 등 사업 시행할 경우에도 공원 및 녹지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환경녹지국장)

Ⅳ.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 請　願

가. 接受現況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累 計	4	4	1			3	

○ 分 野 別

區 分	計	保健衛生	上下水道	道路交通	環 境	都市計劃	其 他
今 回							
累 計	4			2		1	1

○ 委員會別

區 分	計	運 營	行政自治	教育社會	經濟交通	建設環境	特別
今 回							
累 計	4				1	2	1

나. 處理現況

○ 總　括

區 分	接受	處理	處　　理　　內　　容						未處理
			處　　理				不採擇 不受理	撤回	
			議會서 處理	市長이 處理	他機關 移送	其他			
今 回									
累 計	4	4		2		2			

○ 委員會 審査結果

區　分	回　附	附　議　與　否		未 處 理
		附　議	不 附 議	
今　回				
累　計	4	2	2	

○ 本會議 審査結果

區 分	附 議	採 擇 與 否		處　理　方　法			繫 留
		採擇	不採擇	議會서 處理	市長이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累 計	2	2			2		

2. 民　願

가. 接受現況

○ 分 野 別

區分	計	經濟産業	教育文化	保健福祉	環境綠地	都市計劃	交通	建設	上下水道	其他
今回	8				1	1	2	2		2
累計	247	12	17	7	12	60	38	60	7	34

○ 地 域 別

區分	計	中區	東區	西區	南區	北區	壽城區	達西區	達城郡	其他
今回	8		1			1	3		2	1
累計	247	24	28	8	30	35	58	26	24	14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8	6	2	1	1	2	2
累 計	247	192	109	12	23	48	55

나. 處理現況

區 分	計	處　理			
		處理	不受理	取下	他機關移送
今 回	8	8			
累 計	247	236	2	3	6

Ⅴ. 5分 自由發言 現況

가. 分野別 內譯

區分	計	一般行政	經濟産業	文化體育	保健福祉	環境綠地	都市建設	交通	上下水道	其他
今回	1							1		
累計	26	1	8	1	2	2	4	4		4

나. 發言要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7. 9(수) 10:35	권기일 의원	○동대구환승센터 건립은 동대구역세권 개발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프로젝트 추진능력을 대내외에 검증받을 수 있는 훌륭한 측정도구임. 따라서 동대구환승센터는 동대구역세권 개발의 전초전으로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의 수립과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 리더쉽이 요구되어진다고 할 것임. 이상에서 언급한 시각에서 지난 2008년 7월 2일에 이루어진 동대구환승센터 용역보고회와 관련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첫째, 동대구환승센터 용역보고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사업성 분석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7. 9(수) 10:35	권기일 의원	예컨대, 동대구환승센터의 건립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자금조달 등의 문제가 있어 민간자본의 투입을 전제로 한 민관투자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입장에 대한 고민은 부족함. 즉, 동대구환승센터의 시설면적에서 데크시설과 공원조성 면적을 제외하고 각 시설별 면적과 구성비를 살펴보면, 동대구환승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환승터미널 면적이 36,688㎡(23.3%)이고, 업무시설 면적이 58,840㎡(37.4%)이며, 숙박시설 면적이 13,819㎡(8.8%)이고, 상업시설 면적이 48,099㎡(30.5%)로서 총157,446㎡(100%)임. 이 가운데 상업시설 면적이 본 프로젝트 추진에서 핵이라 할 수 있는 환승터미널이나 숙박시설 면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큼. 동대구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도시교통 수단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과 新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부여라는 웅대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환승터미널의 면적이 기존의 동부·남부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승차장 면수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면적도 너무 과다한 관계로 향후 추진될 동대구역세권 사업에서의 민간자본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7. 9(수) 10:35	권기일 의원	투입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동대구환승센터에 있는 상업시설에 단순히 쇼핑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한층 더 심한 교통대란을 겪도록 할 것임. 따라서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한 예산투입의 제약으로 인해 외부의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판단을 하여 동대구환승센터가 건립하는 목적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의 면적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둘째, 동대구환승센터에 대한 용역이 잘 이루어져야 건실하고 우량한 민간업체가 자본을 투자하여 프로젝트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全역량을 집결해야하는 것임. 또한 동대구환승센터 건립은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민관투자사업으로 대구시 대외민간자본 투자유인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임. 따라서 동대구환승센터는 대구 공직자들의 참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대구환승센터를 추진하는 주무국인 교통국 직원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全공무원이 노력하여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Ⅵ. 本會議 傍聽 現況

區 分		計	1次 (7.8)	2次 (7.9)	3次 (7.24)		
계	금 회	15		11	4		
	누 계	298					
학 생	금 회						
	누 계	39					
시 민 단 체	금 회						
	누 계	5					
일반인	금 회	15		11	4		
	누 계	254					

第172回 臨時會

Ⅰ. 集會 및 議事日程 ····· 40
1. 集　會 / 40
2. 會期 및 開議日數 / 40
3. 議事日程 / 41

Ⅱ. 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 44
1. 接受現況 / 44
2. 處理現況 / 45
3. 主要議案 處理內容 / 48
4. 繫留議案 / 51

Ⅲ. 市 政 質 問 ····· 52
1. 質問現況 / 52
2. 質問內譯 / 53

Ⅳ.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 71
1. 請　願 / 71
2. 民　願 / 73

Ⅴ. 5分 自由發言 現況 ····· 74

Ⅵ. 本會議 傍聽 現況 ····· 89

開　會　辭

존경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김범일 시장님과 신상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위가 물러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이때 오늘부터 11일간 제17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8일부터 처서를 지나 더위가 한풀 꺾인 24일까지 베이징올림픽 17일간은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금빛 낭보와 열정과 투지는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단의 투혼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 하였으며,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계기로 사회의 모든 분야가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대구·경북 550만 시·도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등 산업지구 개발과 함께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발화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초기 산업근대화의 선도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던 대구·경북은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업무개시를 계기로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손잡고 노력하여 해외에서 혹은 수도권에서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 원스톱행정지원체계 확립, 차별화된 지식기반서비스 제공,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연 연계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국토 해안에 위치한 다른 자유구역과 차별화된 내륙분지형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업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제5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추진 노력 등의 성과로 기업환경 개선부문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태풍의 계절이 종료될 때까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한 각종 대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실행하여서 시민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금년 한 해도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현안사업들이 금년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72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서 시민 일상과 밀접한 많은 안건과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민원사항을 면밀히 챙기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넉넉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年　8月　26日

大邱廣域市議會　議長　　崔 文 贊

Ⅰ. 集會 및 議事日程

1. 集　會

○ 집회요구자 : 정해용 의원 외 9인

○ 집회공고일 : 2008. 8. 18

○ 개　회　일 : 2008. 8. 26

○ 폐　회　일 : 2008. 9. 5

2. 會期 및 開議日數

가. 會期 : 11일(누계 : 305일)

나. 開議日數

○ 본회의 : 3일(누계 : 63일)

○ 위원회

區 分	計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小計	運營	行政自治	敎育社會	經濟交通	建設環境	豫算決算	其他
今 回	5	5	1	1	1	1	1		
累 計	354	300	21	67	65	62	85	31	23

3. 議事日程

가. 本 會 議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8.26(화) 10:16	1. 제1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次	8.27(수) 10:07	1. 시정에 관한 질문
3次	9. 5(금) 10:05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8.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10.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委 員 會

○ 運營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8.27(수) 16:42	1.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行政自治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9. 2(화) 10:07	1.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敎育社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9. 3(수) 10:02	1.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經濟交通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9. 1(월) 10:05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9. 1(월) 10:05	3.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建設環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9. 2(화) 14:10	1.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1. 接受現況

○ 機 關 別

區 分	計	議會				大 邱 廣域市	敎育廳
		小計	議員	議長	委員會		
今 回	13	5	3	2		7	1
累 計	352	157	70	71	16	168	27

○ 種 類 別

區 分		計	條例				豫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小計	制定	改正	廢止				
計	今回	13	9	3	6			1		3
	累計	352	182	45	128	9	23	46	8	93
議 會	今回	5	2	1	1					3
	累計	157	43	13	30			20	8	86
大 邱 廣域市	今回	7	6	2	4			1		
	累計	168	122	29	84	9	13	26		7
敎育廳	今回	1	1		1					
	累計	27	17	3	14		10			

2. 處理現況

가. 總　括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3	12	10	2			1
	누계	352	349	263	78	1	7	3
조　례	금회	9	8	6	2			1
	누계	182	179	107	65	1	6	3
예산·결산	금회							
	누계	23	23	13	10			
도시계획	금회							
	누계	7	7	7				
동의·승인	금회	1	1	1				
	누계	46	46	45			1	
건의·결의	금회							
	누계	8	8	7	1			
규　칙	금회							
	누계	6	6	4	2			
기　타	금회	3	3	3				
	누계	80	80	80				

나. 本 會 議

區 分		附 議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2	12	10	2			
	누계	341	341	263	78			
조 례	금회	8	8	6	2			
	누계	172	172	107	65			
예산·결산	금회							
	누계	23	23	13	10			
도시계획	금회							
	누계	7	7	7				
동의·승인	금회	1	1	1				
	누계	45	45	45				
건의·결의	금회							
	누계	8	8	7	1			
규 칙	금회							
	누계	6	6	4	2			
기 타	금회	3	3	3				
	누계	80	80	80				

다. 委 員 會

區 分		回附							處理					繫留
		計	條例規則	豫算決算	都市計劃	同意承認	建議決議	其他	計	附議		不附議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0	9			1			9	7	2			1
	누계	245	188	23	7	27			242	157	77	2	6	3
운영	금회	1	1						1	1				
	누계	25	25						25	19	6			
행정자치	금회	2	1			1			2	2				
	누계	68	55			13			68	53	13		2	
교육사회	금회	2	2						2	1	1			
	누계	50	44			6			50	35	13		2	
경제교통	금회	4	4						4	3	1			
	누계	36	29			7			35	18	15		2	1
건설환경	금회	1	1											1
	누계	42	35		7				40	19	19	2		2
특별	금회													
	누계	24		23		1			24	14	10			

3. 主要議案 處理內容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19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사회	○국무조정실 및 감사원 대행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통보된 조례 준칙(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함.	수정 (9. 3)	수정 (9. 5)
2920	대구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자치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일부 용어와 요율을 정보통신의 발달 등 시대변화에 맞추고, 행정정보공개 서비스를 개선함.	원안 (9. 2)	원안 (9. 5)
2921	2008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장	행정자치	○지역에너지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각 ○청소년 문화의 집 매각 및 대체건물 매수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신축 및 기부채납 ○육상진흥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원안 (9. 2)	원안 (9. 5)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22	대구광역시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시장	경제교통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 중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수정 (9. 1)	수정 (9. 5)
2923	대구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경제교통	○국제규모 컨벤션 시설 확충사업에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참여토록 하여 중앙 및 우리시의 재원지원 근거 마련함.	원안 (9. 1)	원안 (9. 5)
2924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시장	경제교통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원안 (9. 1)	원안 (9. 5)
2925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시장	경제교통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원안 (9. 1)	원안 (9. 5)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27	대구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해용 의원 외 5인	운영	○2008. 8. 5일자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추가시키고자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	원안 (8.27)	원안 (9. 5)
2928	대구광역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정순천 유영은 의원 외10인	교육사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시공 및 사용 승인전에 적절한 사전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안 (9. 3)	원안 (9. 5)
2929	제17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본회의	○ 회기 - 2008.8.26~ 9.5		원안 (8.26)
2930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동희 의원 외 6인	본회의	○출석공무원 - 시장, 교육감		원안 (8.26)
293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본회의	○서명의원 - 양명모, 이재술		원안 (8.26)

4. 繫留議案

議案番號	議 案 名	上 程 日		繫留日	繫留事由
		委員會	本會議		
2737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		2007.8	
2913	대구광역시경관조례안	건설환경		2008.7	
2926	대구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		2008.9	

Ⅲ. 市 政 質 問

1. 質問現況

가. 質問議員數 : 3名(累計 : 78名)

나. 質問件數

○ 對象機關別

區 分	計	大邱廣域市	敎 育 廳
금 회	6	5	1
누 계	135	127	8

○ 分 野 別

區 分	今 回	累 計
계	6	135
일 반 행 정	1	15
문 화 체 육	1	9
교 육	1	8
경 제 · 산 업		26
환 경 · 녹 지	1	8
상 · 하 수 도		3
보 건 · 복 지		4
교 통	2	18
도 시 계 획		14
건 설 주 택		24
소 방		1
기 타		5

2. 質問內譯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송세달	1.대구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6개 광역자치단체별 체육시설을 비교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타 도시에 비해 1인 대비 점유면적이 0.767㎡로 6개 광역시 중 4위에 해당하고, 1개 시설당 인구 대비 8,973명으로 6개 광역시 중 시설당 인구가 가장 많아 단순히 인구 대비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대구시는 열악한 환경임. 현재 대구 체육시설을 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구체적으로 어느 체육시설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련, 대구시에는 17개의 위탁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가장 궁극적 목적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있으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흑자냐, 적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	○우리 시의 체육시설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와 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관련하여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은 총 280개소 190만㎡로 전국에 비교한다면 한 2.5% 수준으로 시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타 시·도에 비해 다소 적은 실정임. 시설 상태, 엘리트·동호인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보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사격장 등은 양호한 실정이며, 야구장, 실내체육관, 간이운동시설 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우리 시에서는 2009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대구체육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앞으로의 체육시설 확충계획은 먼저 2013년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해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부족한 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송세달	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였다면 이를 위해 위탁기관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임.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면밀한 분석을 하는 단체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적자운영에 있어서도 뭔가 변화를 시도해 보지 않는다는 것임. 현재 대구시가 1년동안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 시설별 가동률은 어떠한지, 그리고 가장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무엇인지?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의 시민 활용도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은? 세 번째, 대구시가 추진중인 공공체육시설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에 관련하여 새로운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우리시가 관리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직영시설 13개소와 위탁시설 17개소 등 총 30개가 있으며 공공 체육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총 155억원임. 체육 시설의 가동률은 수영장 339일(93%), 성서운동장 170일(94%, 사용기간 2007.7.1~2007. 12.31), 시민체육관 300일(82%), 강변축구장 256일(70%), 대구체육관 151일(41%) 등 연간 150일~330일 정도로 가동하고 있음. 공공체육시설 활용도와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과 관련 대구스타디움은 콘서트, 축제와 같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의 적극 유치를 통해 활용도를 도모하고 있으며, 대구체육관 등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수탁기관 선정방식이 공개모집으로 전환되어 이용률 제고는 물론 수지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이 개선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며 독립채산제 위탁관리 시설의 경우 연간수지가 흑자일 때 운영 성과에 상응하여 초과수익의 30%를 수탁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송세달	하는데, 몇천억원을 투자하여 지은 시설이 특정 집단만이 활용하거나 소수만이 활용하는 시설이 됨으로써 빚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음. 대구시가 체육시설을 새롭게 건립한다고 했을 때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설들이 일반시민들을 위한 체력증진 장소나 다양한 시민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일반시민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설활용계획은?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기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 있는지?	다음은 신규로 건립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와 일반시민들을 위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가 건립 추진중인 체육시설은 다음 달에('08. 9월) 완공되는 대구사격장은 국제사격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규모 사격장으로 선수 경기력 향상과 일반 시민을 위한 관광사격장도 설치되어 있어 사격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2009년 4월에 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성서운동장은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실내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되어 서부지역 주민들의 종합운동시설로써 주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09년에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U대회 스포츠센터는 구기종목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유도, 레슬링, 복싱 등 투기종목의 선수 육성을 위한 전천후 다목적 체육시설로 긴요하게 활용될 것이며, 육상진흥센터는 육상인구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설로 세계육상연맹과의 약속사항이며 대구가 세계 육상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임. 향후 새로이 건립되는 공공체육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송세달		시설도 선수 및 경기단체 또는 소수만이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생활체육교실에 적극 활용토록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질 높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 기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기존시설에서 이용을 넓혀나가는 방법과 기존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먼저 공공체육시설을 선수들만의 시설이 아니라 스포츠 클럽, 생활체육동호인,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이용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이용료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노후화로 인해 효율적인 시설 활용과 질 높은 서비스가 어려웠던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고 대구체육관, 만촌사이클경기장 등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이며, 향후 두류수영장, 시민운동장씨름장, 야구장, 강변축구장의 개보수 작업도 추진함과 동시에 체육시설을 보다 다양하게 공연·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활용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음. (문화체육관광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송세달	2.학교시설 개방과 관련,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학교운동장뿐만 아니라 일반교실이나 시청각실 등 실내시설에 대한 개방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운동장 개방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고 대다수 학교가 개방을 꺼려하고 있음.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현재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일몰 후 시설이용 제한 등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학교 출입문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음.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학교평생교육사업」,「학부모 인터넷교실 운영사업」,「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학교 외등 가동 전기요금 확보」등이 있으며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중 시설이용제한 관련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별로 학교규모, 주변 환경, 주민들의 요구 사항, 시설 배치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지역교육장이나 교육위원회가 학교시설 개방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학교현장의 제반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학교의 장이 시설개방을 결정하는 것이 학교시설 관리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개방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재량을 준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짐. 다만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가 합당한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토록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 학교공원화사업은 대구교육청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므로 2002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송세달	따라서 학교장에 의한 시설제한보다는 학교장 요청에 따라 지역교육장이나 교육위원회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용 제한사유를 게시하는 등 자의적인 제한을 방지하고 보다 개방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학교공원화사업은 학교담장을 허물고 허문 공간을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시설이 지역친화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학교담장을 개방하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는 총 73개교에 조성면적은 4만 3,509㎡에 이르며, 121억 3,85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2004년도까지 추진한 푸른 학교 가꾸기사업에서는 총 182개 학교에 18억 2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3년에서 2008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색학교 조성사업을 통해 총 45개학교에 2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학교내 운동장 녹화와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등을 만들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한 2002년부터 2008년 현재 대구시와 연계하여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 총 41개 학교의 담장을 허물었으며 교육청 자체공사와 학교 신축시 총 36개교의 담장을 개방한 바 있음. 이러한 학교 공원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 학교가 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담장 허물기 및 공원화 사업에 더욱 힘쓰고 학교 담장 허물기사업과 대구교육청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예정인 「학교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연계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표창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송세달	이와 관련 첫째로, 교육청에서 학교담장공원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학교담장공원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둘째, 학교담장공원화사업은 방범의 문제, 개별 학교의 구조적 문제, 관리부담 과중 등으로 인해 학교장이 사업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한 적이 있는지? 셋째로, 교육청의 올해 예산 1조 7,800억 원이나 되지만 사업 중에서 일부는 소모성 사업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교육청의 사업 중 학교담장공원화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학교 공원화 사업은 소요되는 예산 액수와 관련 없이, 대구교육청의 공약사업이므로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타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21억 정도 소요되는 나머지 73개교의 담장개방사업을 대구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교육감)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양명모	1.우리 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관련 다양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시민들의 욕구 또한 복잡하게 표출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통전문가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됨. 일반공무원의 경우 전문지식과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과 잦은 순환보직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으며 업무특성상 많은 민원과 과다한 업무로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일반공무원이 교통정책의 전문가가 되기란 쉽지 않음. 우리 시의 경우 계약직으로 나급 2명, 다급 2명, 라급 3명으로 총 7명의 교통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바 있으나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 시에서도 작년부터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률이 4,5% 정도 증가에 그치는 등 생각했던 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보다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우리시에서는 교통수요관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개편, 서비스 개선,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 관련 업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교통전문직을 채용하여 교통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우리시와 같은 대도시의 교통정책은 종합행정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식견과 함께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도 아주 중요한 자질임. 따라서 교통정책집행책임자를 일반직이 아닌 교통전문가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교통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통전문직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양명모	전문적인 아이디어나 정책을 의사결정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직급이 아니며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권한 부여가 약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 교통국의 교통정책이나 대중교통 정책집행의 책임자로 교통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관에 대해 시 차원의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은 한 번도 없었으며 각각의 기능을 담당한 기관들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고비용·저효율의 기관 운영이 계속되고 있음. 먼저, 건설과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는 지하철 관련 문제로서 현재 우리 시의 도시철도는 기획에서부터 건설까지는 공무원 조직인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관장하고 이의 운영은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가 맡고 있음. 과연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 건설만을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직 채용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대중교통과 관련된 기관의 통·폐합과 관련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철도공사나 건설관리본부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인천, 광주, 대전처럼 도시철도의 특수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 초기단계에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를 89년에 설립하여 도시철도 건설을 전담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하철 1, 2호선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연장 23.95km, 30개 정거장, 차량기지 건설 등 5년간에 걸친 대형 사업으로 각 공정별 발주와 공구별 관리 등 건설과정의 여건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도시철도공사 및 건설관리본부와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다만, 도시철도 3호선 준공 이후 지하철 연장건설 등 소규모 사업만 남았을 경우 건설관리본부와의 통합을 적극 검토 할 계획임. 대중교통업무를 통합 전담할 기관 신설방안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관련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에 적극 공감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양명모	목표로 상시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시철도공사와 합치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관리본부와 통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할 것임. 이외에도 출연기관으로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통연수원,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문제 등 통합 가능한 부분에 대해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철도공사나 건설관리본부와 통합하는 방안과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 교통연수원의 교육기능, 교통국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 장애인콜택시 운영업무 등을 통합 전담할 기관으로 교통관리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해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는?	하며, 가칭 교통관리공사 설립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조직 통폐합, 신설 등 조직 구성 문제는 인력, 예산, 지역여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인천시 등 타 도시의 모범사례와 해외 주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동대구 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사업과도 연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양명모	준공영제 시행 2년반이 지난 지금 재정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시민의 편의성은 제고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당시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60%에 이르고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승객의 증가로 흑자경영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2005년에서 2006년 원유가 50에서 53달러일 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1%이던 것이 원유가 110에서 120달러인 현 시점에 38% 정도로 준공영제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은 하락한 반면,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2006년 413억원, 2007년 564억 원, 2008년 764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제도 실패의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단편적인 몇 가지 대책으로 준공영제를 통한 대중	○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버스/지하철 중심의 수송체계로 전환 교통혼잡비용 절감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음. 시내버스 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5대 광역시에서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내년부터는 전 광역시로 확대될 예정임 그간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이용인구 증가, 교통카드 사용률 증가로 인한 경영투명성 향상, 교통사고 감소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동안 준공영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 특히 최근의 고유가로 인해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대책 등 수입금 증대방안, 시민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따라서 준공영제 시행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한 검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양명모	교통 활성화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총망라해서 준공영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현실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편의 증대 및 재정지원 최소화 등 준공영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민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소안내기 및 유개승강장 설치를 확대하고 시내버스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기사 친절교육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교통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1.대구가 추구해야 할 시정방향과 최근 시정의 몇 가지 이슈들과 관련하여 오늘날은 창조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창조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바탕 위에 감성을 담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만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고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창조도시는 예술문화로 대표되는 창조성이 탈공업화시대의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시민사회의 시스템을 개혁하여 그 도시만의 특성과 개성을 창출하는 것이 도시의 중심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일의 시민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최상의 환경을 만들고 가꾸는 일, 시민을 존경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발굴하는 일을 시정 최고목표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과 기술, 문화적 감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창조가 중요시되는 창조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한 창조도시 건설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함.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운영하던 제안제도를 온라인 아이디어 제안시스템인 “기분좋은 상상”으로 새단장하여 인센티브, 포상 등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 그리고, 세계 각국의 창조도시에 대한 이해와 공무원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금년 5월, 시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세계창조도시 벤치마킹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창조도시 마인드 함양을 제고해 나갈 것임. 아울러, 상상력이 보다 풍부하고 창의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하고 참신한 공공디자인 실천계획을 수립 중이며, 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에 창의적이고 쇄신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음. 다음으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두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함.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창조사회에 걸 맞는 창조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정 전반에 걸쳐 창조적인 마인드로 정책을 발굴하고 시정을 펼쳐갈 수 있는 방안은? 대구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미래 비전과 창조도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한, 꾸리찌바와 그로닝겐, 코펜하겐이 창조도시로 거듭나기까지는 수많은 혁신적인 실험들이 있었듯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실험을 통해 미래대구를 만들어갈 종합적인 구상을 준비할 의향은?	실험을 통해 미래 대구 구상에 대한 준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은 미래의 대구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이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의 미래구상에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자치회의', '청소년 특별회의'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구상에 반영하고 있음. 아울러, 미래 대구 건설을 위한 창의적인 실험의 일환으로 특별한 끼를 가진 지역의 다양한 인사를 중심으로 "미래 상상연구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미래 구상을 수립하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2.대구의 중요 자원인 신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가창교에서 금호강 합류부까지의 총 연장 12.4㎞의 구간에 올 여름 단 2개소의 물놀이장이 상류에만 설치되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내년에 상동교 상류에 10여 개소의 물놀이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신천 하류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은 집 앞에 신천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욕을 즐기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상류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현재와 같은 수질에서는 신천 전역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신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면 생태계가 복원되어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천의 전 구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형태의 물놀이 공간이 조성될 것임.	○신천 야외 물놀이장은 무더운 여름 폭염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도심에서 물놀이 피서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하상을 정비하여 2개소에 설치하여 무료로 운영해 본 결과, 시민들로부터 경제적 부담이 없고 시간적으로 이용이 편리하여 매우 인기가 있고 이용객이 많아 7월부터 현재까지 40일간 4만 여명이 이용하였고, 1일 최대인원은 4,350명이나 되어 내년에는 상동교 상류에 확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신천 전역 물놀이장 조성에 대하여는 상동교 하류 구간이 신천하수종말처리수를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질소와 인으로 인한 부영양화로 냄새가 발생하여 현 수질로는 물놀이장으로 적합하지 않음. 그래서 가창댐 물을 이용하여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상동교 상류지점에 추가로 확대 시행할 계획임. 다음으로 다양한 테마별 공간 조성의향 관련하여 현재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치수를 근본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이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현재 추진 중인 신천의 물놀이장을 단순한 물놀이 개념을 넘어서는 깨끗한 수질의 강수욕장으로 신천 전 구간에 확대 분산하여 조성할 의향은? 또한 신천의 전 구간에 다양한 테마를 부여하여 특별한 재미와 이벤트 등 다양한 장소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신천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강수욕장을 조성하여 여름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여 사계절 내내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함. 신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대구 심장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들의 휴식과 학습, 레포츠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신천으로 만든다면 신천의 가치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신천 전 구간 12.4㎞을 크게 상류, 중류, 하류부로 나누어 테마별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상류부, 가창교~상동교 구간은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버들치 서식처조성 등 하천생태 개선구간으로, 중류부, 상동교~신천교 구간은 넓은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어 컬러풀문화축제 공간으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수변문화 활성화 구간으로, 하류부, 신천교~침산교구간은 하상 퇴적층과 식생대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수변경관 구간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임. 또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신천을 만들어 가치를 극대화와 관련하여 금년 여름 물놀이장 개장으로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겨울철에는 대봉교 하류 좌안 수변문화 활성화 구간에 이동식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야생화 군락식재, 초본군락식재 등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연출을 유도하겠으며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으로 만들겠음. (건설방재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3.대구시는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철도 4호선의 노선을 연장 37.6㎞에 달하는 순환하는 호리병 모양의 노선으로 변경하였는데, 장기적으로 대구의 발전가능성, 경제성, 간선철도 기능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지역의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충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의 기능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한 견해는? 다음은 도시철도 4호선 조기 착공과 관련하여 4호선은 만평네거리~황금네거리~본리네거리~만평네거리를 연결하는 순환선으로 4호선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1·2·3호선을 건설하기까지의 천문학적인 공사비용이 그 의미를 상실할 것으로 생각함.	○순환선인 4호선은 이미 개통한 1·2호선과 현재 착공 준비 중인 3호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교통편익과 수요창출로 시너지 효과 증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노선임. 4호선을 건설하게 되면 1·2호선과 3호선에 연결되는 환승역이 모두 6개나 신설되어 편리한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됨은 물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계된 교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시가 대중교통의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도시철도 노선이라는 점에서 동감함.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서 1, 2호선 건설에 따른 부채 및 운영부담과 3호선과 1,2호선 연장건설을 위한 재정부담이 너무 큰 것이 현실이고 보면 4호선 건설의 조기 착공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한 조기건설이 되도록 노력 하겠음. 4호선 조기건설을 위하여는 먼저 노선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는 행절차가 필요함. 이를 위해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할 계획임.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시 노선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도시철도 4호선의 사업 타당성도 조기 검토해 3호선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철도 4호선의 필요성과 조기건설에 대한 견해는? 마지막으로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고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노면경전철시스템은 대중교통 중심도시와 저탄소 녹색환경도시를 표명하고 있는 우리 대구에 가장 적합한 대중교통시스템이라고 판단함. 도시철도 1·2호선, 모노레일 3호선, 노면경전철 4호선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건설하여 대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접근성 향상, 도심 내의 재개발 유도 및 보행자 우선의 대중교통 도입을 위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면경전철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획은 물론 건설시기, 건설방법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제적이면서 도시경관이 우수하고 이용 면에서도 장점을 가진 노면전철(트램)을 포함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 시스템을 결정하도록 하겠음. 추진과정에서 여러 분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Ⅳ.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 請　願

가. 接受現況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累 計	4	4	1			3	

○ 分 野 別

區 分	計	保健衛生	上下水道	道路交通	環 境	都市計劃	其 他
今 回							
累 計	4			2		1	1

○ 委員會別

區 分	計	運 營	行政自治	教育社會	經濟交通	建設環境	特別
今 回							
累 計	4				1	2	1

나. 處理現況

○ 總　括

區 分	接受	處理	處　　理　　內　　容						未處理
			處　　理				不採擇 不受理	撤回	
			議會서 處理	市長이 處理	他機關 移送	其他			
今 回									
累 計	4	4		2		2			

○ 委員會 審査結果

區　分	回　附	附　議　與　否		未 處 理
		附　議	不 附 議	
今　回				
累　計	4	2	2	

○ 本會議 審査結果

區 分	附 議	採 擇 與 否		處　理　方　法			繫 留
		採擇	不採擇	議會서 處理	市長이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累 計	2	2			2		

2. 民　願

가. 接受現況

○ 分 野 別

區分	計	經濟産業	教育文化	保健福祉	環境綠地	都市計劃	交通	建設	上下水道	其他
今回	9					2	2	3		2
累計	256	12	17	7	12	62	40	63	7	36

○ 地 域 別

區分	計	中區	東區	西區	南區	北區	壽城區	達西區	達城郡	其他
今回	9	2			1	1	1	1	1	2
累計	256	26	28	8	31	36	59	27	25	16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9	5	3	1	1		4
累 計	256	197	112	13	24	48	59

나. 處理現況

區 分	計	處　理			
		處理	不受理	取下	他機關移送
今 回	9	9			
累 計	256	245	2	3	6

Ⅴ. 5分 自由發言 現況

가. 分野別 內譯

區分	計	一般行政	經濟産業	文化體育	保健福祉	環境綠地	都市建設	交通	上下水道	其他
今回	5		1	1		1		2		
累計	31	1	9	2	2	3	4	6		4

나. 發言要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10	이재술 의원	○대형소매점의 농·축산물 등 지역생산품 구입 의무화 및 지역상품 판매 코너 설치, 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 추진 등 다양한 지역기여도 향상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대구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18개소의 대형소매점영업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동구와 수성구에 2개소의 입점이 추진되고 있어 이미 지역생산품의 구입 및 유통과 관련한 지역 유통상권은 이들 대형소매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특히, 농산물의 소매시장은 이미 대규모 유통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주부들이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식료품조차도 장바구니가 동네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에서 대형소매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10	이재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대구시의 노력은 명절 전·후 농산물 특판매장 및 쉬메릭 매장 설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등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볼 때,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형소매점에 대한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 기여도 향상 등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대구시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임. 이와는 달리 최근 광주시에서는 지역 법인인 광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지역본부 등과 함께 지역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대전시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운영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상품 판매코너’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주시는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간 상호 협력을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대형소매점의 지역생산품 구입 및 유통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모 경제일간지에서 유통·소비재 기업의 경영 전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공 경영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소비접점에 있는 유통·소비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회성이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10	이재술 의원	아닌 지속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인 것임. 이제 우리 대구시에서도 대형소매점, 주부 및 소비자를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재래시장 및 기존 지역 유통상권 간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 대형소매점의 자발적인 지역 생산품 구입 확대 노력 강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상생하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듯이 대형소매점과 같은 유통기업 역시, 지역 사회와의 상생경영 노력 없이는 지역에서 성공할 수 없음을 각인시켜 줘야 할 것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15	지용성 의원	○두류정수장부지내 대구기상대 이전에 따른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대구시에 올바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함. 2008.8.14. 대구시의 일방적인 기상대 이전 발표와 관련하여, 세계 어느 도시를 보나 전국의 어느 도시를 보아도 기상대가 시내 중심부에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행정가의 식견이라고 믿기 어려운 처사라고 판단됨. 첫째,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무효임. 2008. 12월 달성군 소재 문산 취정수장이 개통예정에 있어 기능 및 구조조정 측면에서 본 의원과 건설환경위원에서도 수차 폐쇄론을 제기한 바, 대구시에서는 2007. 8. 3. 두류정수장 존폐 문제에 따른 용역을 시행한 후 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대구시장은 용역결과에 앞서 두류정수장을 기상대 이전지역으로 발표함으로써, 폐쇄문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 설령, 정수장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행정절차상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대구시도시계획조례」제17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종합토지이용계획」수립 후 주민의견 수렴 및 시의회에 보고한 후 기상대이전 문제가 거론되어야 함에도 시의회에 보고·협의는 커녕 지역구 시의원에게도, 관할구청장에게도 사전에 한마디 협의 없는 이런 시정은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15	지용성 의원	성토 받아 마땅하며 시장으로서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함. 둘째,「기상관측 표준화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제3조2항과 관련 풍향·풍속계는 주변 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 이격 설치되어야 하며 10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으나, 대구시장은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장애물 높이를 4배이상 지키도록 하겠다는 협의공문 하나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피해는 없다고 계속 주장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임. 셋째, 두류정수장내 기상대 이전은 적격한 후보지가 아님. 세계기상기구(WMO)의 지상기상관측소 선정기준에 의하면 건물이나 숲으로 멀리 떨어진 개활지(탁 트이고 전망이 좋은 땅)에 기상측기가 위치하여야 하며 건물높이의 10배, 숲 높이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두류정수장은 코앞이 공원으로 숲이 우거져 있고 그 주변으로 아파트와 수많은 건물들이 도시로 형성된 지역인 바, 기상대 이전에 적격한 후보지가 아님. 넷째, 대구시의 기상청간 공문이 오고간 내용을 보면 토지사용을 등가교환식으로 합의한 것으로 현 기상대의 공시지가는 ㎡당 660,000원이며 두류정수장은 ㎡당 204,000원임. 2007년 공시지가로 비교시 현 기상대부지가 3.3배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15	지용성 의원	비싸므로 땅을 3.3배 더 주든지 현금으로 환산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임. 현 기상대 부지가 가치가 있는지? 현 두류정수장 부지가 가치가 있는지? 다섯째, 2008. 6. 13. 대구시가 기상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현 기상대 주변지역이 일반규제로 수 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 제한과 지역의 슬럼화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어 기상대 이전 협조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고 어느 지역은 이런 난제들을 새로 뒤집어쓰고 가란 말인지? 대구시 자료에 의하면 두류정수장 고도는 46m이며 인근 두류산의 고도는 98m로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가국토정보지리원 자료에 의하면 두류정수장 고도는 36m, 인근 두류산의 고도는 140m로 되어 있음. 이 자료에 따라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면 4배 적용시 영향권은 200m이며, 본 의원의 주장대로 4배를 적용하면 400m가 되는 것임. 본의원의 판단은 기상대 이전계획 위치에서 두류정수장 중앙 쪽으로 더 내려와 직접 피해 영향권을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여섯째, 말도 안 되는 행정편의주의, 부서이기주의로 기상청은 최적후보지를 외면하였고 대구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15	지용성 의원	2008.2.25. 대구시(동구청)와 기상청간의 후보지 협의과정에서 4개 지역(신평동, 숙천동, 대림동, 금강동)추천되었으며, 기상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 지역은 부적 판단되었으나 신평동 산1-1번지 즉 혁신도시 서편는 관측환경 양호, 접근성 부분적합, 고속도로 주변으로 소음분진 대책필요 의견으로 2008.2.29 답신이 왔음. 신평동은 관측환경이 양호하다는 기상청 자체조사에서도 인정하였으나, 고속도로 인접 운운하며 관공서입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했음. 민원인 기관방문 및 근무자 생활여건불편 등을 내세워 반대함으로써 기상대 입지여건 핵심인 관측환경양호라는 본연의 직분을 무시하였는데 이는 부서이기주의 발상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임.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개선사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시 대구시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력 있는 재고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20	김덕란 의원	○지식정보를 구성하는 심층기반이자 지식기반사회의 원동력으로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지금까지 도서관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립중앙도서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어 각 지역의 일반 공공도서관에 전달되는 체계로 운영되어 오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수동적으로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수준에서만 도서관 정책에 관여해 온 것은 사실임. 그러나 지난 2006년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중앙정부 중심의 도서관정책체계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적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그동안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거의 역할을 수행해 오지 못하던 광역자치단체는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특히, 「도서관법」의 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변화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변화는 광역단위 도서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주민밀착형 정보서비스를 위한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는 것임. 타시·도의 경우 제주 우당도서관, 대전한밭도서관, 인천시립도서관 3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고, 전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20	김덕란 의원	제주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광주, 경기, 전북, 대전, 제주 등 5개 시도는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으나, 대구시는 아직까지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이나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이렇다 할 만한 계획이나 정책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대구시에서는 하루빨리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을 포함한 도서관 정책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와 함께 도서관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로 도서관이 지역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지식정보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점점 “독서실화” 되어 간다는 것임. 현재 대구시에는 총 17개소의 도서관이 있으나 거의 모든 도서관들이 정보교육이나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공부방이나 독서실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서관이 독서실의 기능에서 벗어나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지식정보화사회에 접어든 지금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교육·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건강한 시민의식과 지역문화 형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도서관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대구시가 도서관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25	정순천 의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도시편의시설 확충의 문제점과 시내버스내 CCTV 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먼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도시편의시설 확충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으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전후로 하여 많은 국제대회가 치러질 예정이고 사회각계에서 지금도 수많은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우리 대구에서 장애인 E-Sports대회가 개최될 예정임. 대구에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대비해 관광호텔을 확충하고, 각종 도시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노약자 및 장애인관련 시설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문화관광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시설이 국내기준에만 치중하다보니 국제기준에는 안 맞아 장애인관련 국제대회의 유치는 물론이고 외국관광객의 유치도 어려운 실정임.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국제기준에 맞지 않으면 향후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새로 개축해야 하는 등, 이중부담이 발생하므로 애당초 국제기준에 맞게 모든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시된 채, 많은 시설들이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대구의 세계화와 지방화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25	정순천 의원	기회이지만 대구시의 행태는 말로만 세계화를 외치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내 3류도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시장님께서는 부디 2011년 육상대회 개최를 기회로 대구의 복지수준을 앞당기고 모든 면에서 대구시가 세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람. 다음은 시내버스내 CCTV설치와 관련 며칠전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가 서비스개선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으나,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CCTV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하드는 10%에 불과하고, CCTV의 관리 또한 시내버스 업체와 조합에 맡겨져 있음. CCTV설치의 목적에는 서비스개선과 교통사고 예방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도 포함되어 있으나, 아이러닉하게도 CCTV의 운영과 관리는 버스회사측이 하도록 되어 있음. 대구시가 예산부족으로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중립적인 시민단체에 CCTV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아니 준공영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이는 대구시민임을 감안한다면 대구시나 대구시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CCTV를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25	정순천 의원	버스 준공영제 실시이후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날로 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무려 8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전적으로 대구시민의 부담임. 부디 CCTV가 소극적으로 교통민원과 교통사고 증거채취용으로만 사용되기 보다는 준공영제의 정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부탁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30	류규하 의원	○지난 8월 28일 반월당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 사태와 관련한 근본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대구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면서 반월당 지하공간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반월당 지하공간이용시설을 조성하여 대구시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지난 2005년 6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2005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20년 동안 반월당 지하공간이용시설의 무상사용을 허가하는「공유재산무상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음. 대구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이루어진 대부계약서에는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번에 문제가 된 에스컬레이터 뿐 아니라 모든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후 사업시행자는 반월당 지하상가 입점 상인을 모집하여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입점 상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과정에서 반월당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의 주체가 사업시행자에서 지하상가 입점상인으로 바뀜.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30	류규하 의원	그 후 지하상가 운영법인인 (주)메트로센터는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전기료 및 유지관리 비용과 지하보도 냉·난방비용 등을 대구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해 왔음. 이러한 민원에 대해 대구시는 지하보도 및 출입시설의 전등 전기사용료와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의 전기사용료를 대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또 다시 이 문제를 둘러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다가 급기야는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다행히 운행중단 사태가 발생한지 1주일 만인 어제 운행이 재개되어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여 불씨가 언제 되살아나 시민의 발목을 잡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 반월당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유지·관리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첫째,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반월당 지하공간이용시설물의 기능과 성격상 공공성이 높아 민간에 맡겨서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시설물과 민간에 맡기더라도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설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민간사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맡김으로써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9. 5(금) 10:30	류규하 의원	둘째, 대구시는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공유재산무상사용대부계약」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임. 예를 들면, 대부계약서 '관리운영권 제3자 양도·양여 및 승계의 대구시 사전승인',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황 제출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셋째, 이 문제는 지난 2005년 3월 이후 지하상가 입점이 개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무려 3년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결국, 대부계약서 체결 당시 대구시의 미흡한 행정으로부터 초래된 이 문제는 사후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순환만 반복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불편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대구시의 미흡한 계약체결로 인해 초래된 문제인 만큼 두달 여간의 남은 기간동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함.

Ⅵ. 本會議 傍聽 現況

區 分		計	1次 (8.26)	2次 (8.27)	3次 (9.5)		
계	금 회	88		4	84		
	누 계	386					
학 생	금 회	2			2		
	누 계	41					
시 민 단 체	금 회						
	누 계	5					
일반인	금 회	86		4	82		
	누 계	340					

第173回 臨時會

Ⅰ. 集會 및 議事日程 ····· 96
1. 集　會 / 96
2. 會期 및 開議日數 / 96
3. 議事日程 / 97

Ⅱ. 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 103
1. 接受現況 / 103
2. 處理現況 / 104
3. 主要議案 處理內容 / 107
4. 繫留議案 / 115

Ⅲ. 市 政 質 問 ····· 116
1. 質問現況 / 116
2. 質問內譯 / 117

Ⅳ.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 153
1. 請　願 / 153
2. 民　願 / 155

Ⅴ. 5分 自由發言 現況 ····· 156

Ⅵ. 本會議 傍聽 現況 ····· 165

開　會　辭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김범일 시장님과 신상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축제의 즐거움이 가득한 10월의 좋은 시기에 오늘부터 15일간 일정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의 달인 이달 10월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줄을 이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개막된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한국오페라 6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수준 높은 작품들로 구성되어서 오페라 마니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오늘 폐막하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훙겹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들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미국발 금융위기와 멜라민 파동으로 주름진 시민들의 무거운 마음에 안정과 즐거움, 그리고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참여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수도권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총투자의 62%나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비롯한 각종 국내·외 여건은 우리 대구가 보다 특성화되고 글로벌화한 생존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침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에서는 대구비전 2020 수정계획안을 통해서 이러한 난관을 타파할 각종 대형 프로젝트와 중점 사업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그 어느 해보다 더 좋은 성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아시아 그랑프리 대회로 격상해 개최하였습니다.

경기 운영과 선수단 숙박, 교통·쓰레기 문제 등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미리 보완해 나가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다가오는 2011년 우리 대구를 전 세계에 우뚝 세우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는 남은 기간 학생 지도에 정성을 다해 주시고, 시험 당일 고사장 확보와 교통편의 제공, 수능시험 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역 수험생들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73회 임시회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비롯한 각종 주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비회기 중에도 관련 자료 수집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개개인의 업무가 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단초 중의 하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바 시정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年　10月　7日

大邱廣域市議會　議長　　崔 文 贊

Ⅰ. 集會 및 議事日程

1. 集　會

○ 집회요구자 : 김덕란 의원 외 9인

○ 집회공고일 : 2008.　9. 26

○ 개　회　일 : 2008. 10.　7

○ 폐　회　일 : 2008. 10. 21

2. 會期 및 開議日數

가. 會期 : 15일(누계 : 320일)

나. 開議日數

○ 본회의 : 4일(누계 : 67일)

○ 위원회

區 分	計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小計	運營	行政自治	教育社會	經濟交通	建設環境	豫算決算	其他
今 回	12	11	1	2	1	3	4		1
累 計	366	311	22	69	66	65	89	31	24

3. 議事日程

가. 本 會 議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10.7(화) 10:16	1. 제1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次	10.8(수) 10:06	1. 시정에 관한 질문
3次	10.9(목) 10:10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5분 자유발언의 건
4次	10.9(목) 10:10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안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4次	10.9(목) 10:10	11.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2.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일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용·이윤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희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18. 대구광역시대구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1.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3.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용·박정희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6.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4次	10.9(목) 10:10	27.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9.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기상대 이전 반대 청원의 건 3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3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나. 委 員 會

○ 運營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10.9(목) 14:08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行政自治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10.15(수) 10:04	1.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2次	10.17(금) 09:12	1.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敎育社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0.17(금) 10:13	1.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經濟交通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10.10(금) 10:04	1.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次	10.16(목) 10:05	1. 당면현안 업무보고 -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소관
3次	10.17(금) 10:05	1. 당면현안 업무보고 - 교통국 소관

○ 建設環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10.10(금) 10:05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
2次	10.14(화) 10:07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안
3次	10.15(수) 10:05	1. 업무보고의 건 -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 소관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3次	10.15(수) 10:05	2.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4次	10.20(월) 16:02	1.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기상대 이전 반대 청원의 건

○ 尖端醫療複合團地誘致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11.13(목) 11:07	1. 대구광역시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Ⅱ. 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1. 接受現況

○ 機 關 別

區 分	計	議會				大 邱 廣域市	敎育廳
		小計	議員	議長	委員會		
今 回	32	20	17	2	1	11	1
累 計	384	177	87	73	17	179	28

○ 種 類 別

區 分		計	條例				豫算決算	同意承認	建議決議	其他
			小計	制定	改正	廢止				
計	今回	32	23	6	17			3	2	4
	累計	384	205	51	145	9	23	49	10	97
議 會	今回	20	14	6	8			1	2	3
	累計	177	57	19	38			21	10	89
大 邱 廣域市	今回	11	8		8			2		1
	累計	179	130	29	92	9	13	28		8
敎育廳	今回	1	1		1					
	累計	28	18	3	15		10			

2. 處理現況

가. 總 括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32	33	28	5			
	누계	384	382	291	83	1	7	2
조 례	금회	23	24	19	5			
	누계	205	203	126	70	1	6	2
예산·결산	금회							
	누계	23	23	13	10			
도시계획	금회	1	1	1				
	누계	8	8	8				
동의·승인	금회	3	3	3				
	누계	49	49	48			1	
건의·결의	금회	2	2	2				
	누계	10	10	9	1			
규 칙	금회							
	누계	6	6	4	2			
기 타	금회	3	3	3				
	누계	83	83	83				

나. 本 會 議

區 分		附 議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33	33	28	5			
	누계	374	374	291	83			
조 례	금회	24	24	19	5			
	누계	196	196	126	70			
예산·결산	금회							
	누계	23	23	13	10			
도시계획	금회	1	1	1				
	누계	8	8	8				
동의·승인	금회	3	3	3				
	누계	48	48	48				
건의·결의	금회	2	2	2				
	누계	10	10	9	1			
규 칙	금회							
	누계	6	6	4	2			
기 타	금회	3	3	3				
	누계	83	83	83				

다. 委 員 會

區 分		回附							處理					繫留
		計	條例規則	豫算決算	都市計劃	同意承認	建議決議	其他	計	附議		不附議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26	23		1	2			27	22	5			
	누계	271	211	23	8	29			269	179	82	2	6	2
운영	금회													
	누계	25	25						25	19	6			
행정자치	금회	14	12			2			14	13	1			
	누계	82	67			15			82	66	14		2	
교육사회	금회	4	4						4	4				
	누계	54	48			6			54	39	13		2	
경제교통	금회	2	2						2		2			
	누계	38	31			7			37	18	17		2	1
건설환경	금회	6	5		1				7	5	2			
	누계	48	40		8				47	24	21	2		1
특별	금회													
	누계	24		23		1			24	14	10			

3. 主要議案 處理內容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13	대구광역시경관조례안	시장	건설환경	○「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수정 (10.14)	수정 (10.21)
2932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사회	○대구광역시립효목도서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9개 도서관의 위치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함.	원안 (10.17)	원안 (10.21)
2933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자치	○지방공무원정원 총수 4,669명을 4,747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 1,531명을 1,609명으로 함.	원안 (10.17)	원안 (10.21)
2934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자치	○시정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이 유사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함.	원안 (10.17)	원안 (10.21)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35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자치	○채권매입대상 변경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을 조정	원안 (10.17)	원안 (10.21)
2936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자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원안 (10.15)	원안 (10.21)
2937	2008년도제5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장	행정자치	○시유 잡종재산(토지) 매각 - 중구 계산동2가 271-34번지 외 5필지(1,151.5㎡)	원안 (10.15)	원안 (10.21)
2938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행정자치	○천지인학당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동부소방서 공산119안전센터 신축 ○달서소방서 죽전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원안 (10.15)	원안 (10.21)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39	대구광역시대구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교육사회	○조례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대구월드컵경기장의 명칭을 대구스타디움으로 변경함.	원안(10.17)	원안(10.21)
2940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경제교통	○컨택센터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함.	원안(10.10)	원안(10.21)
2941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시장	건설환경	○하천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원안(10.15)	원안(10.21)
2942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건설환경	○수도법개정으로 인하여 조문을 재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	원안(10.14)	원안(10.21)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43	제173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본회의	○제173회 회기 - '08.10.7~10.21		원안 (10.7)
294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지용성 의원 외 6인	본회의	○출석공무원 - 시장		원안 (10.7)
2945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도입촉구결의안채택의건	이윤원 의원 외14인	본회의	○지역경제와 지방세수 간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조속한 도입 촉구		원안 (10.7)
294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본회의	○서명의원 - 김충환, 정순천		원안 (10.7)
2947	대구광역시주요공공시설물손괴자신고포상금조례안	이재술 의원 외 6인	행정자치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 방지와 공공시설물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원안 (10.15)	원안 (10.21)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48	대구광역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	박돈규 의원 외14인	행정자치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공성을 갖춘 지역 공익시설로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원안 (10.15)	원안 (10.21)
2949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식, 이윤원 의원 외 6인	행정자치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원안 (10.17)	원안 (10.21)
2950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권기일 의원 외 7인	행정자치	○보조금 사업내역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 하고 보조금사업실적 및 정산서 제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	원안 (10.17)	원안 (10.21)
2951	대구광역시지방공기업조직진단조례안	양명모 의원 외 8인	행정자치	○공기업 조직의 투명성과 경영의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원안 (10.17)	원안 (10.21)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52	대구광역시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조례안	권기일, 양명모 의원 외 7인	행정자치	○대구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수정 (10.17)	수정 (10.21)
2953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규용, 이윤원 의원 외 6인	행정자치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외이사를 확대하여 건전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원안 (10.17)	원안 (10.21)
2954	대구광역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	류규하, 도이환 의원 외 6인	교육사회	○「정신보건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안 (10.17)	원안 (10.21)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55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동희 의원 외 7인	교육사회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차상위계층의 청소년에게 시설이용료를 면제하고,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원안 (10.17)	원안 (10.21)
2956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대현, 김충환 의원 외 8인	건설환경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시설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 제한을 삭제함.	수정 (10.14)	수정 (10.21)
2957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해용, 박정희 의원 외 7인	건설환경	○공단 이사 수를 12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를 확대하여 건전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원안 (10.15)	원안 (10.21)
2958	대구도시공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경호, 김영식 의원 외 7인	건설환경	○공사 이사 수를 12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를 확대하여 건전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원안 (10.14)	원안 (10.21)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59	대구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송세달, 정순천 의원 외 7인	경제교통	○공사 이사 수를 12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를 확대하여 건전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원안(10.10)	원안(10.21)
2960	대구광역시시민아이디어운영조례안	정규용, 이윤원 의원 외11인	행정자치	○시민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	원안(10.15)	원안(10.21)
2961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시장	건설환경	○도시철도 3호선의 본선 및 정거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원안(10.14)	원안(10.21)
2962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양명모 의원 외 6인	본회의	○위원장 - 양명모 의원 ○부위원장 - 김대현 의원 ○위 원 - 유영은,이재술 나종기,권기일 정해용 의원		원안(10.21)
296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각 상임위원장	본회의	○2007년 및 2008년도 예산집행실태, 주요업무추진현황 등에 대한 감사실시 ○감사기간 - 2008.11.18~11.27(10일간)		원안(10.21)

4. 繫留議案

議案番號	議 案 名	上 程 日		繫留日	繫留事由
		委員會	本會議		
2737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		2007.8	
2926	대구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		2008.9	

Ⅲ. 市 政 質 問

1. 質問現況

가. 質問議員數 : 7名(累計 : 85名)

나. 質問件數

○ 對象機關別

區 分	計	大邱廣域市	敎 育 廳
금 회	10	10	
누 계	145	137	8

○ 分 野 別

區 分	今 回	累 計
계	10	145
일 반 행 정	1	16
문 화 체 육	1	10
교 육		8
경 제 · 산 업	1	27
환 경 · 녹 지	1	9
상 · 하 수 도		3
보 건 · 복 지	2	6
교 통	3	21
도 시 계 획		14
건 설 주 택	1	25
소 방		1
기 타		5

2. 質問內譯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1.우리시의 교통정보센터 운영실정을 보면 대구지방경찰청 내 위치한 교통정보센터에 대구시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업무는 교통상황관리와 교통정보를 인터넷과 안내전광판에 게재하고 방송사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주도적인 교통행정 수행에는 문제가 있음. 대구시가 교통신호D/B 운영비용과 교통정보센터 운영비용, BMS구축 사업비용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대구시가 투자한 시설의 일부를 대구지방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통행정의 주체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대구교통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서울시와 같이 교통정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교통정보 수집·제공, 신호체계 조정,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1988년 중부경찰서에 설치된 교통관제센터를 모태로 하여 2005년 대구경찰청사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역시, 버스운행의 과학적 관리와 시민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구축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시청사 공간 등 제반여건으로 인해 대구지방경찰청의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대중교통정책의 실효성과 대중교통관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시설물 관리체계와 분리하여 BMS와 현재 개발 중인 교통정보 D/B, 주차정보시스템,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독자적인 교통관리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청사 공간, 재정적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임. 앞으로 신청사 확보, 자치경찰제 시행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교통관리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보다 편리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시 자체의 독자적인 도로교통체계의 운영으로 과학적인 교통정보 D/B관리와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으로 이용자 입장의 BMS센터 관리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버스의 정시성 향상 및 통행시간 절감을 위해 버스의 운행관리가 필수적이나 대구시에서는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연료비 지원과 적자운영수입 보전금의 공정한 지급 등 버스회사의 관리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BMS시스템 이용자 불편사항으로 막차정보서비스 미흡, 맞춤형 버스도착시간 안내서비스 부족, BMS의 버스도착시스템 평가사이트 제공 미비, 버스도착시간의 몰림현상 등에 대한 대책마련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 또한 2차선에 정차로	○막차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시내버스 정류소에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류소안내기가 2006년도에 50대, 금년 2월에 200대를 설치 운영중이며 대구~경산 광역BIS구축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11월부터 정류소안내기 100개소와 범어, 동대구 안심 등 시민들의 환승이 많은 5개 역사 지하철역 지하1층에 각 2개소 10개 설치 등 총 360개소에 버스도착안내기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버스도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맞춤형 버스도착시간 안내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류소에 안내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시내버스 도착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그 이용 건수는 2007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 기준 하루 10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더욱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형과 맞춤정보로 개선할 계획임. 또한 현재 7자리인 접속번호를 외우기 쉽고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4자리(8003-팔공산)로 11월부터 변경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용 증대를 위해 홈페이지 및 버스차내,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인한 사고의 위험을 노출하는 행위 등의 문제도 해결하는 등 BMS의 기능을 이용자 측면에서 좀 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전면 교체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버스승강장을 좀 더 안락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개인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으로 버스의 고급화와 버스노선의 경쟁체제 도입을 제안하며, 버스 노선입찰제는 공공관리를 통한 공공성과 민간에 의한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선별로 입찰제를 통해 선정된 버스업체에게 해당노선을 운행하게 하는 형태이며, 노선입찰제의 장점으로는 노선의 공공성 확보와 노선의 조정이 용이하고 버스의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고, 운행평가를 통해	정류소 쉘터, 표지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하겠음.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산간 광역 BIS구축 사업』이 마무리 되는 11월경에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평가하고 향후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마련하여 버스정보 서비스 향상과 개선점을 파악토록 하겠음. 버스 고급화와 버스노선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선입찰제 시행목적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첫째, 경쟁입찰을 통한 비용절감. 둘째, 운송원가는 높아지나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비용절감을 위한 경쟁 입찰의 경우는 수익노선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경쟁 입찰제는 서비스 개선에 효과가 있으나 일반노선의 표준운송원가보다 높아 준공영제하의 재정지원 가중을 가져오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우리시의 경우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 103개 노선 중 흑자노선은 겨우 11개 노선에 불과하고 90%정도가 적자노선이며, 현 시점에서 노선입찰제 도입은 버스 업체수를 늘이고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도 있음. 따라서 우리 시도 노선입찰제를 통하여 새로운 노선 개발과 이층버스나 굴절버스 등 고급형 버스 도입을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버스노선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추가적인 환승무료 손실금을 늘이는 등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새로운 노선의 개발이나 2층버스 및 굴절버스 등 고급차량 도입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체간 서비스 경쟁의식을 높이는 방안 등은 서비스 수준 향상과 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훌륭한 대안중의 하나라고 생각됨. 향후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교통국장)
	2.상인~범물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파동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권과 관련하여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상의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파동고가교 주변 대기질과 소음공해에 대한 예측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상인-범물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오염물질의 낙진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파동고가교 전 구간을 덮개로 덮는 방안에 대하여 앞산 및 범물터널과 파동고가교 공사 및 운영시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및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의 예측치 및 소음 등이 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방음터널 설치는 상하부 단면이 과다해져 추가적인 환경영향 경관불량, 주거지역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기 영향의 예측은 미세한 자연현상 풍향, 풍속, 안정도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장래 자연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정량화하여 모델에 적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 따라서 대구시는 환경기준치 이하의 소음과 분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염려한다면 특단의 오염발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또한 현재 공사 중에도 주민들이 소음기준치인 86.9db에 미달하는 72db의 공사장 소음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수험생의 학습부진, 그리고 학습방해, 야간 근무 주민들의 수면방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조피해 예상, 방음터널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과다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통행요금 증가나 징수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시민에게 전가 될 수 있어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현 상황에서는 설치가 곤란하다고 사료됨. 터널내 오염물질이 파동지역으로 송풍되어 오염을 가중 시키지 않도록 수직구를 설치하여 터널내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파동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터널의 환기량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요환기량이 낮아 제트팬 방식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이로 인한 인접지역 대기질 예측치가 환경기준치 50% 미만이며, 수직구 설치 시에는 공사용 진입 및 유지관리도로와 환기탑 부지 조성 등으로 극심한 자연환경 및 산림훼손과 함께 막대한 별도 사업비(393억원정도)가 소요되므로 수직구 설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터널 내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차집하여 정화한 후, 배출하는 대기정화 시스템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공사장 분진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저감대책도 수립하여 소음과 진동, 대기오염이 환경기준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클 수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하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준공 후에 영구히 이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바로 강구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대책은?	도입하여 공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은 대기정화 시스템인 집진기 등은 터널내 매연을 제거하는 장비이나, 과다한 설치비 및 유지비로 인하여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00년 국정감사 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은바 있어 대기정화시스템인 집진기 설치는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 공사 중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는 파동주거지 동측 용두골 구간의 파동고가교 교각을 시공 중에 있으며 환경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으나, 일부작업 시 심야시간대의 작업이 불가피하여 저소음장비 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소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하겠으며, 공사 전후와 운영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건설관리본부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박돈규	1.국가복지사업 부담금과 관련 지방비 부담분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복지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과중한 국가복지사업비의 부담으로 인해 우리시와 각 구·군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대구시와 각 구·군 사회복지재정 지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재정 열악성 문제를 해소할 경우 시 재정의 유연성과 독립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시와 구·군의 사회복지재정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충실하게 반영되고 사회복지차원의 배분 역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국가복지사업에 대한 시의 의무부담을	○국비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는 대응재원(matching-fund)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함에 따라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실정에도 지방비 부담이 국비보조금 규정이나 재정 관련 관계법규에 의거 집행됨에 따라 지방비 의무부담 사업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은 중앙정부차원의 법령 개정이나, 재정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시 차원에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다만, 보건복지분야의 지방이양사업 67개 사업 중 국가업무 성격이 강한 일부 사업이라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 등을 통해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음. 또한, 시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구·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후 시행되는 복지사업만큼이라도 추가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종합복지회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을 여성회관에 통·폐합하는 문제는 프로그램운영의 효율성이나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박돈규	전액 국가부담인 복지사업대책과 구·군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와 시비 의무부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국가복지사업과 시 복지사업에 대한 구·군 부담을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운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와 관련하여 2008년 현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운영법인에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인과 시설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침화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보면, 통·폐합하여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우선, 시설을 이용하는 복지수혜자의 특성과 시민들의 복지기관 접근의 편의성, 평생학습 및 평생교육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3개 기관의 복지시설을 차별화, 특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여성회관의 도시 중심가로 이전하는 방안은 이용자의 접근성,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과 이전에 따른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계획임. (시장)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방안은 시기적절한 지적과 제안이라고 생각함.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현행 법령상 법인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직접 매 3년마다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구·군이 정기적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업무폭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박돈규	시민에게 보다 발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와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복지사업 운영법인과 시설의 관리감독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부재라는 사실임. 따라서 시민의 복지를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시와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담조직 설치는 시 산하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력을 보강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위해 법인·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받은 지 오래된 법인·시설과 예산지원이 많은 법인·시설에 대한 점검을 순차적으로 확행하겠으며, 문제 제기가 되거나 민원이 있는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 시에는 감사관실과 시민을 명예감사관으로 하여 합동감사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시설투명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시 본청 50명, 구·군 별 각 30명 증원하는 방안은 현재 복지분야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전국적으로 1만여명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였고, 내년에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당장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기존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새로운 신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우선 조치하고 향후 복지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박돈규	그리하여 운영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제대로 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이 시민의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대구시민의 복지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나 맞춤형 복지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사후 결과도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경직된 관료주의에 따른 창의성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므로 미래지향적・생산적・창의적 복지 창출, 시민의 복지 욕구에 따른 능동적 복지 창출과 이러한 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이 당연히 필요함. 대구시도 서울이나 부산보다 발전된 시민의 복지에 개선을 가져올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창의적 복지 창출, 시민의 복지욕구에 따른 능동적 복지를 창출	○전달체계 개편이나 추가 정원 확보 기회가 있으면 전담조직 구성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우선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음. 현재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3,483명중 26명이 평균 週3회정도(평균 3시간) 대학에 출강하고 있어 산·학·연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업무시간 중 잦은 출강으로 복지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법인·시설 운영에 대한 면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음 서울이나 부산과 같이 능동적 복지를 창출할 수 있는 복지재단 설치방안 관련하여 지난해 우리시도 복지재단설치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고, 특히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부산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재단설치 여부를 깊이 있게 검토한 바 있음.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사업성과에 비해 연간 운영경비가 16억원 정도 소요되는 점과 기존 사회복지협의회, 민간연구소와의 기능 중복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박돈규	할 수 있는 복지컨트롤타워와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재단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끝으로, 대구시의 여성정책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대안과 관련하여 여성복지회관은 종합복지회관과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을 통·폐합해서 중복프로그램을 배제하고 각각의 별도의 일관성 있는 맞춤복지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산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대구의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회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회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을 도시중심가로 이전해서 실효성 있는 여성복지정책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따라서 복지재단 설치시기와 구체적인 방안 등은 사회복지업무량 증가추이, 민간기관과 기능중복 문제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종합적 검토를 하겠음. (보건복지여성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전성배	1.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은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안전', '정부 투명성'이란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 9월10일 기획재정부는 광역권별로 세 개에서 다섯 개씩 총 삼십 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하였으며, 지식경제부는 지역별로 한 개 내지 두 개의 선도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그러나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동통신과 에너지 산업만을 대경권 선도산업 후보로 선정하였으며, 우리 지역은 이러한 선정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현재 대구시는 수성의료지구 조성을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 한국뇌연구원 역시 의료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로봇산업은 현재의 반도체와 자동차시장을	○정부는 지역정책의 중점을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대경권인 우리 시와 경상북도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포함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여 에너지와 의료, 로봇, 모바일 등 4개 산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산업별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린에너지, 의료비즈니스, 모바일·실용로봇 비즈니스벨트 등 3개분야 산업육성계획안을 정부에 제출(8.23)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지난 9월 10일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광역경제권별로 2개씩의 선도산업 발전비전을 발표하면서, 대경권의 선도산업으로 에너지와 이동통신을 예시로서 제시하였음. 정부는 선도산업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합의를 거치고,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10월중 최종결정한다는 방침도 동시에 발표하였으나, 우리 시로서는 지역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경북도와 더불어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정을 협의하고 있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전성배	대체할 미래의 주력 산업분야로서 이동통신사업은 로봇과 전자의료기기를 포함한 IT융합 신사업으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함. 선도산업의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사업과 로봇사업 분야는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분야인 만큼 의료사업과 로봇사업을 선도산업에 포함시킬 방안은? 선도산업 선정 후, 선정결과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선 대구시가 특화전략이 없어 전체적으로 참여분야를 특화시켜 알리는데 실패하였으며, 다음으로 참여분야별로도 대구와 경상북도 간의 역할 조정,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전문가 집단 간의 협조체계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략선도산업 선정부터 시행 세부계획 마련까지 지역의 전략산업 구축체제는?	특히, 지난 9월 1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가균형발전위원 회의에서 지역의 기반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재생에너지와, 의료·로봇 분야가 반영되지 않은 선도산업 선정의 부당함을 강력히 제기하고 지경부장관으로부터 대구 경북이 의견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따라서 정부에서 10월10일까지 시·도에서 합의안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만큼, 우리시와 경북도는 이미 선도산업을 「그린에너지」와 「IT융·복합」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효율적인 선도산업 육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전문가로 선도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 산하에 해당산업별로 실무위원회를 두고 선도산업 세부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의견이 종합된 선도산업 지정 및 세부프로젝트지원 계획이 우리시안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전성배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가능성 있는 기업의 유치에 몰입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 의문임.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담당 공무원의 권한 범위 밖에 있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사업기획과 추진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대구시의 기업유치 과정과 성과, 국가사업 유치 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 결과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외부전문가의 제안에 대하여는 기업의 성장잠재력, 지역 경제 기여도 및 이전 실행 가능성과 지역으로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범위 등을 대구경북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분야 교수, 컨설팅업체, 동종업계 전문가 등의 자문과 시 관계부서간 내부협의 및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투자유치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투자유치 성과에 대하여는 분기별 자체평가를 통해 조정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으로 지역 투자유치 수요조사, 전문가에 의한 투자유치자문관 도입,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발굴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리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모바일, 지능형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건강의료산업 등 신산업 창출과 고용증대 및 신성장동력의 원동력이 되는 대기업군 유치에 최우선 과제로하여 최고경영자와의 면담, 수도권 기업을 타깃으로 한 투자박람회 및 각종 경제인 행사참석 등을 통한 홍보와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내륙도시라는 이미지와 함께 지난 10년간 정치적 요인에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전성배		의해 중앙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등 유치에서 소외를 받아왔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가 없어 대규모투자 수요에 대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대기업이 없어 기업유치가 활발하지 못함. 올해 대기업이 발표한 신규투자계획의 대부분이 수도권 또는 기존 입지에 재투자 될 예정이어서 대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지역도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배후 산업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수도권과의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타 지역에 비해 인건비가 낮고 매우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등 친기업적인 지원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되는 만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본격 개발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값싼 산업용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신 국제공항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산업인프라 확충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투자유치 및 기업이전 성과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경제통상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전성배	2.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워둔 대안은? 또한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시민서포터즈 운영 등의 사업을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뿐만 아니라 행사 진행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이며 이들의 역할 또한 매우 다양한데, 현재 대구시에서 육상대회와 관련하여 계획추진 중인 자원봉사자 관리방안은? 대구시가 육상대회를 개최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한국과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인데, 2011대회를 통해 대구의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여줄 예정인지?	○2011대회는 213개 국가가 참가하고 선수·임원·기자단 등 최소한 7,000여명이 대구에서 체류할 것이며 대회기간 중 3만여명의 외국관광객들이 대구를 찾으므로 대구마케팅의 절호의 기회임.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 인프라구축, 도시환경정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문화행사 유치, 스포츠마케팅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 실용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부터 분야별로 발굴·육성해 나가겠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육상스타 선수 양성이 되겠음. 우리시는 2011대회를 계기로 육상스타 육성은 정부의 책무임을 강력히 건의한 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한국육상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1팀” 86명(10개 종목)을 선발, 전지훈련에 임하고 엘리트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80명의 꿈나무를 선발·육성하고 있음. 육상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2005년부터 개최해온 '대구국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전성배	특히 개·폐막식의 경우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대구를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개·폐막식과 관련하여 세워둔 기본계획과 방향은? 육상대회 개최를 통해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대구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세워둔 홍보전략이나 마케팅전략은 무엇이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육상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육상에 대한 이해와 관람매너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시민들이 육상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현재 대구시가 육상저변 확대나 육상붐 조성과 관련하여 세워둔 계획과 전략이 무엇인지? 현재 대회 개최와 관련 2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시가 세계육상선수	육상경기대회'와 2001년이후 매년 개최한 "대구마라톤대회"도 내년부터는 IAAF 기준에 맞는 국제대회로 격상시켜 나갈 계획임. 대회개최에 필요한 예산신청 및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대회 직접경비는 총 사업비 1,927억원(국비963억, 시비등 964억)중 금년도에 국비 62억원을 확보하였고, 09년도에는 정부예산안에 139억원이 반영되었음. 도시인프라구축 및 환경정비사업은 우리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인데 2011대회를 계기로 준공시기를 앞당기자는 것들임. 6개분야 55개사업, 사업비 2조2,680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9년도 정부예산안에 18개사업 676억원의 꼭지를 달아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앞으로 대회 준비를 위한 중점추진분야를 살펴보면 2011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는 많은 선수와 임원 그리고 내외국인들의 참관. 개최국 위상에 걸맞는 성적거양을 위한 우리나라 육상경기력 향상. 최상의 대회시설과 경기운영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확충. 범국가적 안전체계 구축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전성배	권대회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신청하였고, 지원을 확보하였는지? 그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거나 스폰서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강구한 것은? 또한 성공적인 행사진행을 위해서는 대회와 관련된 직접적인 시설의 준비상황과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에 관련한 로드맵이 지금쯤은 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할 것인지?	통한 안전대책 수립 및 최적의 안전보장.“대구”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한 도시마케팅과 시민문화의식 향상 및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이외에도 국가위상과 국민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과제들을 준비해야 할 것임.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회, 지역인사 등 지역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비지원금 확보와 중앙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1.여성가족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의 흐름과 여성의 복지욕구 수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과 관련, 여성가족정책기구에 대한 타 시·도의 예를 들어보면 독립적으로 여성정책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시·도에서 설립한 지역발전연구의 산하기구로 별도의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여성가족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들 기관의 설립과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이들 기관들은 전국을 네트워크화하여 지역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정책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조직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역여성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우리 시는 2004년에 대구경북연구원내 독립기구로 여성정책개발센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발전 관점에서 양성평등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음.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여성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여성정책 목표로 새롭게 정립하고 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우리시의 여성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사업, 성인지예산제도 등의 이행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여성정책위원회가 여성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여성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오고 있음.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여성주간 기념 및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여성발전에 공이 많은 분들에게 대구시 목련상을 시상하고, 여성평등 실천 우수기업도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여성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하여도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 여성단체, 학계, 연구기관, 언론, 일반시민 등으로「희망대구 여성포럼(가칭)」을 구성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인해 대구경북연구원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양성평등연구센터를 설립하여 2007년까지 운영하기도 했으나 올해 양성평등연구센터는 문을 닫고야 말았음. 여성가족정책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임. 왜냐하면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이 일상화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우리 시민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성주류화 정책패러다임은 여성운동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선진국의 사회발전지표로서 국가발전의 척도가 되는 가치이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 시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여성정책에	있는 새로운 여성정책 대안을 개발해 나갈 계획임. 여성가족복지재단 또는 여성가족정책개발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2004년에 여성정책 Think-Tank 설립을 검토하였으나, 중앙정부의 1시·도, 1연구원 설립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추진을 중단한 바 있음. 대안으로 '05년부터 '07년까지 대구경북연구원내에 자체 '양성평등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우리시 여성가족정책 연구업무를 수행해 왔음. 그러나, 정보·지식기반 사회 출현과 더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됨에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발전 수요에 대한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함. 이를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성가족복지재단 또는 여성가족정책개발연구원 설립도 훌륭한 대안이나 우선, 우리시 출연 종합연구기관인 대경연구원을 활용하면서 중·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대한 세계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임.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성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구여성정책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산실로서의 여성가족복지재단 또는 여성가족정책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기적으로 대경연구원과의 기능 배분, 시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독립재단 설립여부를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시장)
	다음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유인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도에 6명이었으나 계속 감소하여 2004년에는 1.16명으로 200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26명)은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며, 지역 합계출산율은 (1.13명) 부산, 서울 다음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임.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의회,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력과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 노력이 필요함. 저출산은 고용 및 소득불안정, 일-가정 양립곤란, 보육·교육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떨어지게 되었고, 2007년 현재 우리 시는 40대 미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4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의 출산율은 2001년 2만 7,924명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6년에는 2만 220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5세 이하 아동인구는 연령이 적을수록 인구수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대구의 출산율이 현 추세대로 계속 감소된다면 심각한 유년인구의 감소 및 전체인구의 감소로 말미암아 급격한 고령사회의 진입이 예상되며, 이는 곧 대구의 지역발전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우리 시의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을 확충 개발함으로써 시민의 생활권 보장을 통해 자녀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인프라 및 질적수준 미흡, 생식건강 저하, 자녀관·결혼관 등 가치관의 변화 등 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저출산·고령사회대응 기반구축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전국최초로 전담부서(저출산고령사회과)를 신설하고('07년 1월), 정책자문단(13명) 운영과, 중앙정부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06~'10)따라 시 차원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착실히 수립·시행해오고 있음.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셋째이상 자녀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보육료 등의 지원과, 다자녀가정을 위한 아이조아카드 발급 등 다양한 우대시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결혼·출산 및 양육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출산 극복 캠페인(8회) 전개와 청소년 가치관교육을 위한 중등교원연수(7월) 및 공무원교육원 관련과정(연 2회)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 우리시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기존 시책의 평가 환류와 설문조사(9월), 정책자문(4월) 시정평가위원 워크숍(8월) 등을 통한 새로운 시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내년에는 전문가의 자문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의 강화와 가족친화, 양성평등의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건전한 미래세대의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저출산,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모방뿐만 아니라 대구의 특성을 감안한 장기적 출산장려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내용 등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중인 출산축하금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둘째아까지 확대추진할 계획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둘째이상 자녀 안심보험료 지원」과 임산부 배려 및 출산장려를 위한「임산부 골든벨 행사」, 인구자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경감을 위한「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등의 신규사업 도입도 적극 검토 중에 있음. 앞에서 말씀드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더불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우리지역의 근본적인 인구유입 정책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유치 활동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보건복지여성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해용	1.자전거전용도로 건설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 관련, 우리 시는 최근 도심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를 배려하기 위한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 체계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자동차 이용규제만으로 대중교통 이용촉진과 자전거도시를 만들 수는 없으며, 우선 자전거와 같은 대안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길거리 대부분의 보행자도로가 자전거와 겸용도로로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어서 전국적인 자료에도 보면 대구시의 자전거도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현재 대구시가 건설해 놓은 자전거도로는 노상 적치물, 인도위 주차 등의 문제로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며, 보관대도 굉장히 허술	○우리시는 자전거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95년“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20m이상 총 도로대비 2.76%에 불과한 자전거 전용도로 비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이는 지금까지 성장과 속도의 관념 속에 차량위주의 교통정책 추진,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문화 형성 부진 등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됨. 다행히 최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와 함께 고유가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용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우리시에서도 도로의 여건,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53,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성서산업단지에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 4.3km(사업비 20억원)를 건설 중에 있으며 동구 금호강 둔치 우안에 행정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해용	하기 짝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되지 않음. 또 하나는 자전거사고와 관계된 안전문제로 대구지역에서는 올 8월까지 110건의 사고가 나서 11명이 사망하고 113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난해 보다 증가되고 있음. 이만큼 자전거를 타기에는 굉장히 보행환경이 좋지 않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행로와 겸용해서 하기보다는 도로를 줄여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대구시 전체는 힘들겠지만 권역별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시범타운을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안전부 시범사업으로(분권교부세 지원사업) 전용도로를 건설중에 있고 향후,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사업시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위주로 건설해 나가겠음.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국최초로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신천둔치(2008.6) 희망교 옆에 설치하여 자전거 교육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민실천운동으로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 가족 및 단체 단위로 자전거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생태공원, 강변도로 등에 자전거타기 시범거리를 지정·운영, 자전거타기 모범학교 운영(중학교 2개교), 지하철역사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자전거타기 행사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다음으로 권역별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타운 건설 관련하여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는 장거리 이동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제안하신 것처럼 대단위 주택단지, 공단 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수단(지하철,버스 등)과 연계 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등 시범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해용		시범타운 조성을 위해 권역별 자전거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시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필요한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음. (시장)
	일반적으로 4km 이상 거리와 30분 이상 소요되면 자전거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음.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오기에는 멀고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때 지하철에 자전거전용칸을 설치한다면 대중교통도 확충이 되고 자전거 이용도 늘어날 수 있을 것임.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운행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행자로 규정이 되어 있어 도로로 다니는 것은 위법인데도 자동차와 교행을 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을 우리 인근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임.	○지하철에 자전거 전용칸을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교통수단간 연계성 제고 차원에서 지하철 자전거 전용칸을 설치하는 방안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나 자전거를 역사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설치, 안전시설 확충, 전동차량 개조 등과 같은 부대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와 같이 부대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전용칸을 운영할 경우, 이동 중에 안전사고는 물론 장애인 등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접이식 자전거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사정이 이러한 만큼 자전거 전용칸은 현재 추진중인 지하철1호선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해용	그래서 보행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보도턱 낮추기 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계획이 필요함.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구축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됨.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교통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교통난의 극복에 두지 말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 우선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구시 생활환경 조성계획이 절실함.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사업 적용방안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편의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성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동편의시설 설치보다는 전체적인 이동동선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실정임. 우리시에서는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등 공공사업 시행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단체를 참여시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한편, 민간 개별시설물의 경우 현재 법률에 인증제 강제규정이 없이 자율인증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시설물을 인증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음. 현재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적극 홍보·권장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교통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박부희	1.대구시에서는 지하철부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이 더욱 어려워지고 책임경영의 한계도 분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부채의 발생 원인별로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로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설부채는 대구시와 정부에서 공동으로 상환하고 운영부채는 지하철공사의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함. 근본적으로 지하철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지원 원칙을 지향하면서 낮은 부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함. 이를 위하여 지하철부채 50% 줄이기 사업과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세계잉여금 일부를 상환재원으로 적립	○2007년말 기준으로 우리시 부채는 2조 7,676억원이며 지하철 부채가 1조 4,931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부채원금 상환을 위해 매년 수천억원씩 차환하는 재정상황에서 원금상환부담 최소화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채권 발행, 저금리 자금 차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빚으로 빚을 갚는 부채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감채기금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약 1,000억)의 30%정도의 재원을 조성(약 300억)하여 내년도 지하철 부채상환에 투입할 계획이며, 지하철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우선, 단기적인 방안으로 현행 지방비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부채상환 지원금을 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지원금 잔액 3,415억원을 3년에 걸쳐 우선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조하여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2009년 국비지원금 563억원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박부희	토록 함으로써 지하철 부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추가적 부담 없이 예산절감을 통한 일반재원으로 지하철부채를 상환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대구시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난 2004년에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가 합의한 지하철부채상환 공동협약이 지방비의 확보 없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차제에 이를 파기하고 부산과 같이 정부가 조건 없이 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차별적이고 불공평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철도 건설과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예산으로 산정하는 방안과 관련, 지난 9월25일 2008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자발적인 관중의 증대를 위해서는 경	이와 함께,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1988년 설치한 국가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을 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사)로 이관하는 조건으로, 부산지하철의 부채 76%를 정부가 인수한 전례처럼 우리시도 부산의 전례와 같이 가칭 “대구 교통공단”을 설치하여 정부가 조건 없이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음. (시장) ○대구 스타디움 주변은 경제자유구역개발, 대구체육공원 조성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등 대중교통 연결망이 시급한 실정임. 현재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나 경기장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도시철도 3호선을 대구 스타디움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대구 스타디움의 접근성은 물론 대구체육공원, 야구장 건립 등 개발계획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됨. 다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투자비에 비해 교통수요가 부족하여 당장 추진은 어렵지만 앞으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박부희	기장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과 대구스타디움 주변 교통시설은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대중교통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경기장 주변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철도 3호선을 대구스타디움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대중교통환승시스템과 경제자유구역 도시통합시스템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상에 대회 여건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도 사회간접자본 확대와 건설경기를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로 3호선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장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철도 3호선 설계에도 향후 연장건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또한, 대구체육공원 조성, 야구장 및 대구미술관 건립, 주차장 지하공간개발, 경제자유구역 등 대구체육공원내의 개발이 본격화 되면 공원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궤도열차(트램) 등을 운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그러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2011 육상대회 인프라구축사업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곤란함. 비수기인 방학과 주말 등에 도시철도의 수송율을 높이는 방안과 영업외 수익 창출을 통한 지하철 부채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방학과 주말 등 비수기 도시철도 수송증대를 위해 내년부터 대구씨티투어 운행코스에 안심습지와 문양역 차량기지 견학코스를 포함하는 등 지하철역과 연계한 역세권 나들이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역별 특성화 사업, 문화공연 유치, 생활민원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지하철을 복합적 문화·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박부희	마지막으로 영업외 수익창출을 통한 지하철 부채 해결과 관련, 도시철도의 외부적 환경변화로 인해 대구 지하철 부채 문제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함께 더욱 심화될 전망임. 장기적으로 대구시도 도시철도사업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역세권과 도시교통 기반을 개발함으로써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방향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제16조 등을 개정하여 영업외 수익사업의 길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자립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서비스 공간으로 변화시킬 예정임. 또한 주말, 공휴일에 집중되는 스포츠, 문화행사 관람자의 지하철 이용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도시철도공사의 영업 외 수익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부대사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를 위해 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가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업제안공모를 실시하여 2007년에 스크린도어 민자유치 등 5건을 추진하였음. 2008년에는 역사내 소극장, 전동차내 LCD 동영상광고 활용을 통한 유비쿼터스 실현, 반월당 환승공간 개발 등 96억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또한, 민자유치를 통한 주요 역사 리모델링으로 임대와 광고사업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용산역 환승주차장 인수 개발, 1호선차량기지 활용방안등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교통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지용성	1.두류정수장 부지 내에 대구기상대 이전에 따른 부당성과 문제점과 관련, 첫째 행정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함. 2008년 12월 달성군 소재 문산 취·정수장이 개통 예정에 있어 두류정수장 존치 문제를 금년 12월24일 완료 예정인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단독으로 정수장 폐쇄를 좌지우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설령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행정절차상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종합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의회에 보고 후 기상대 이전문제가 거론되어야 함에도 성급히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먼저, 대구기상대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대구기상대는 1907년 중구 포정동에서 관측을 시작하여 1937년 현재의 신암동으로 이전한 후 대구와 경북내륙의 광범위한 기상업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조직과 인력구조상의 한계로 대구·경북지역의 기후특성 분석과 연구, 기상예보를 부산지방기상청의 광역예측에 의존하고 있고, 주거밀집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본인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기상청으로의 승격과 이전을 건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특히, 현 대구기상대가 위치한 신암동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07.6.27) 됨에 따라 기상관측환경 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으로 도시재생사업(뉴타운)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기상청으로의 승격을 위하여는 현 대구기상대 부지 규모보다 6,600㎡ 정도(2,000평) 확장이 요구됨에 따라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지용성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오류를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정책사항을 입안함이 마땅히 바른 절차라고 판단됨. 둘째, 기상관측 표준화법에는 풍향, 풍속계는 주변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 이격 설치되어야 하며, 10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기상청과 협의하여 장애물 높이를 4배 이상 지키도록 하겠다는 협의공문 하나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직접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에 따르면 기상관측 환경은 넓고 평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세계기상기구 WMO의 지상기상관측소 선정 기준에 의하면 건물이나 숲에서 멀리 떨어진 개활지에 기상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06년부터 대구기상대를 혁신도시내로 이전하고자 부산지방기상청과 협의,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7년 5월 국토해양부 소관 혁신도시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혁신도시 계획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그 대안으로 동구 신평동 등 4개 지역을 후보지로 제안('08. 2) 하였으나 기상청 관계자의 현장답사 결과,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도심부근에 위치한 지역으로 제시해 줄 것을 기상청으로부터 요청받았음.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기상청이 요청한 입지조건을 검토하여 도심이면서 고도제한 규제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류공원과 인접해 있는 두류정수장내 일부지역을 이전 후보지로 기상청과 협의하게 되었음.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정비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이나, 30만㎡ 이상인 정비사업구역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등이 해당되며, 두류정수장과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후적지 개발사업 등은 필요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지용성	측기가 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건물 높이의 10배, 숲 높이의 20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세계기상기구에서는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과 세계기상기구의 기상대의 지상관측소 선정기준에 의하면 기상대 이전 지역으로 거론되는 두류정수장 지역은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도 140m의 산과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이전예정지에서 최소 1,000m, 최대 2,000m의 이격거리를 두어야만 법률과 세계기상기구 선정기준에 부합하게 됨. 셋째, 2008년6월13일 대구시가 서울기상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현 기상대 주변지역이 일반규제로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 제한과 지역의 슬럼화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어 기상대 이전 협조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음. 현재 대구시의 입장을 볼 때 지역 간의 갈등	에 따라 수립하는 임의대상에 해당됨. 그리고 기상관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기반시설 중 “공공의 청사”로서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 등 법적 절차는 없으나,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후적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사안에 따라 자치구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임. 기상관측기준에 대해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에서 세계기상기구(WMO)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환경부령) 제2조와 기상청고시(제2006-34)에 의하면 기상관측시설은 주변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 이격하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산지 등의 경우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격거리를 10배 이상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두류정수장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등 법 제18조에 해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지용성	조장과 편가르기식 모양새로 대구시민 전체의 화합 차원에서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됨. 넷째, 행정편의주의 부서이기주의로 기상청은 최적후보지를 외면하고 대구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기상청 간의 후보지 협의 과정에서 동구의 신평동, 숙천동, 대림동, 금강동 이 네 곳이 추천이 되었으며, 서울기상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 타 지역은 전부 부적격 판단을 했고, 신평동 산 1-1번지 지역은 관측환경양호, 접근성 부분적합, 고속도로 주변으로 소음분진대책 필요의견으로 2008년2월29일 답신이 대구시로 왔음. 그런데 기상청에서는 고속도로 인접 운운, 민원인 기관방문 불편, 근무자 생활여건 불편 등을 이유로 신평동 이전불가를 대구시에 통보를 했음. 이는 기상대 입지여건의 핵심인 관측환경양호라는 사실이 무시된	당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4배 이상으로 협의한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 대구기상대를 비롯한 타 도시의 도심지에 입지한 기상관측시설도 동일한 기준(4배의 이격거리)을 적용하고 있음. 그리고 기상관측환경 적합 여부는 우리시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기상청이 이전후보지의 기후가 대구시의 평균적 기후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인지 등의 여부와 여러 가지 기후학적 특성을 학문적 자료와 함께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실제 두류공원 최고지점은 해발 140m이고 관측시설예정지점은 해발 43m로 법적이격 거리는 388m이나 두류공원 최고지점과 관측시설 예정지점간의 실제이격거리는 430m임을 말씀드림. 현재, 신암동에 위치한 대구기상대 주변지역은 주민들 소유의 단독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는 두류공원과 인접한 시유지인 두류정수장의 일부분으로서, 신암동과 같이 이격거리 4배를 적용하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고도제한에 따른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지용성	부서이기주의 발상이며 행정편의주의 사고임. 2008년9월4일 국회환경노동위에서 만약 대구시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요구하면 검토하겠다는 기상청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대구시에서는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지역 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제시해 주기를 기대함.	개발제한 피해가 없는 만큼 지역상황이 전혀 다름. 신평동 지역에 대한 기상청의 의견을 부산지방기상청 협의회시공문에 의거하여 말씀드리면, 신평동 지역은 첫째, 시야가 확보되어 관측장애는 없으나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잦은 차량통행으로 인해 정밀측정을 요하는 황사, 일사 및 일조 등의 관측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둘째, 외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현 대구기상대가 관측하고 있는 도시중심지에서의 기상 자료값과 지리적·기후학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의 사유로 도심부근에 적정한 지역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상대이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곽지역에 적정 후보지가 있는지를 기상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시장)

Ⅳ.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 請　願

가. 接受現況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1	1				1	
累 計	5	5	1			4	

○ 分 野 別

區 分	計	保健衛生	上下水道	道路交通	環 境	都市計劃	其 他
今 回	1						1
累 計	5			2		1	2

○ 委員會別

區 分	計	運 營	行政自治	教育社會	經濟交通	建設環境	特別
今 回	1					1	
累 計	5				1	3	1

나. 處理現況

○ 總　括

區 分	接受	處理	處　理　內　容					未處理
			處　理			不採擇 不受理	撤回	
			議會서 處理	市長이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1	1		1				
累 計	5	5		3		2		

○ 委員會 審査結果

區　分	回　附	附　議　與　否		未 處 理
		附　議	不 附 議	
今　回	1	1		
累　計	5	3	2	

○ 本會議 審査結果

區 分	附 議	採 擇 與 否		處　理　方　法			繫 留
		採擇	不採擇	議會서 處理	市長이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1	1			1		
累 計	3	3			3		

2. 民　願

가. 接受現況

○ 分 野 別

區分	計	經濟産業	教育文化	保健福祉	環境綠地	都市計劃	交通	建設	上下水道	其他
今回	10		2		1	4	3			
累計	266	12	19	7	13	66	43	63	7	36

○ 地 域 別

區分	計	中區	東區	西區	南區	北區	壽城區	達西區	達城郡	其他
今回	10	2			3		3	1		1
累計	266	28	28	8	34	36	62	28	25	17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10	6	2		1	3	4
累 計	266	203	114	13	25	51	63

나. 處理現況

區 分	計	處　理			
		處理	不受理	取下	他機關移送
今 回	10	10			
累 計	266	255	2	3	6

Ⅴ. 5分 自由發言 現況

가. 分野別 內譯

區分	計	一般行政	經濟産業	文化體育	保健福祉	環境綠地	都市建設	交通	上下水道	其他
今回	3	1	2							
累計	34	2	11	2	2	3	4	6		4

나. 發言要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9(목) 11:40	유영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현안에 임하는 대구시의 자세변화를 부탁하고자 함.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내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약 백만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지정 후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5조 6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어, 관련법과 시행령이 금년 3월과 6월에 각각 통과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입지선정 평가와 결과 심의를 11월까지 실시하고, 최종 입지선정은 12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은 6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대학에 소속된 의사 수만도 이천 명이 넘는, 양방과 한방의 협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약재시장이 위치한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9(목) 11:40	유영은 의원	풍부한 생약자원을 가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포항의 방사광가속기와 지역의 다양한 의료관련 연구센터들을 인프라로 갖춘 최적의 의료산업 단지가 대구라고 생각함. 경제자유구역의 한 사업으로 수성의료지구를 지정한 것에서도, 이러한 지역의 장점과 의료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의료산업의 중요성과 향후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이미 전국의 십 여 개 지역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천명하고 각 지역별로 상대적인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라, 대구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지역 내외에서 전해지는 두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 우선, 첫 번째로 대구시의 유치 활동이 타 지역에 비하여 후발주자란 인상을 주고 있음.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기부터 의료산업 대한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해온 지역들에 비하여, 대구시는 특별법이 통과한 3개월 뒤인 2008년 6월에야 유치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초기대응이 너무 늦었으며, 후발주자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타 지역의 단점을 보완하는 우리지역의 장점을 부각시킬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지만, 대구시는 타 지역의 단점 부각에도, 우리 지역의 장점 부각에도 모두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9(목) 11:40	유영은 의원	다음으로 유치사업의 주체인 대구시가 유치 추진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뒤에 제3자로 물러서 적극적인 유치 작업을 벌이지 않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유치 논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전해지고 있음. 정부를 설득해 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와 대안 마련의 부재 원인으로 대구시 행정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주는 '안돼도 그만'이라는 행정편의주의적 자세는 지역의 국책사업 유치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진행 중인 몇몇 사업조차 진행성과가 나지 않는 원인이라 생각함. 우리에겐 기회가 있음. 아직 선정과정은 진행 중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현 정부의 우리 지역 공약 중 하나였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이제부터는 대구시가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유치에 필요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먼저, 지역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단에 포함될 전문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사람이 필요하며, 평가단을 설득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의료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행정전문가를 지원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9(목) 11:40	유영은 의원	다음으로 지역의료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논의가 보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노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며,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유치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옴. 지역엔 의료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역에 필요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최적안이 도출되는 과정이 필요함. 지역 의료산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넘어서는 마스터플랜을 가져야 하며, 지역의 의료산업은 지금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음. 이젠 근시안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부의 사업을 쫓기만 하는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야 함. 현 정부는 경쟁력을 가진 지역, 생존할 능력을 갖춘 지역에 자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과연 우리 지역이 가진 경쟁력이 무엇인가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대구시는 지역의 의료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경쟁력을 갖추고 잠재력을 가진 사업을 찾고 만들어 가야할 것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21(화) 10:10	김영식 의원	○대구시 예산배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은 최근에 불어닥친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으며,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하는 6.5%까지 올랐고, 미분양 아파트 역시 2만 채가 넘을 뿐만 아니라, 올 2/4분기 청년실업률은 무려 10.3%에 달하면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장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주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구호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활력도시 실현을 부르짖지 말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서민경제활성화와 기업활동지원 등 경제살리기에 우선 투자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예산편성을 보면 2008년도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투자액은 2조 4,634억원이고, 이중 순계투자액은 2조 3,367억원인데,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9,543억원(40.8%), 도로교통 5,165억원(22.1%), 환경녹지3,817억원(16.3%), 그리고 경제과학분야가 2,743억원(11.7%)순임. 대구가 10여년간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예산이 편성배분되고 있는 것은 복지,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21(화) 10:10	김영식 의원	도로교통, 환경녹지 그리고 다음이 경제분야 이니 이는 분명 말로만 경제살리기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됨. 물론 대구시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대구가 추진하고 싶은 사업과 정책에 모두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한정된 자원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우선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어야 하고, 지금 대구가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함. 본 의원은 지난 제163회 5분 발언에서도 우리 대구시 예산편성이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액이 배정 편성됨으로써 투자 효율이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한 바 있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Zero-base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항상 좁은 범위 내에서 증감만 하고 있으니 전년도와 매번 동일한 예산편성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임. 이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에 의한 관행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시장님의 정책방향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는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 활력소가 될 공격적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21(화) 10:10	김영식 의원	새롭거나 미래지향적이지 못해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뒤쳐진 행정에 긴 한숨과 고통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급변하는 정세에 변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몫은 시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되므로 지금부터라도 대구시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고 선호하는 정책과 사업이기도 한 경제 분야에 집중투자와 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21(화) 10:15	류병노 의원	○한국 금융시장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내일을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 연일 지속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인수에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국내 금융시장 역시 일시적으로 안정될 듯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상황이 단기간에 진정되긴 어렵다고 생각함. 지난 10월 1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통화옵션상품'키코(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흑자부도를 막기 위하여 4조3000억 원의 자금 지원과 4조 원의 신용 공급을 포함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금난과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흑자 도산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보다 심각한 문제임. 미국 금융시장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국내 은행이나 기업의 외화 자금난이 가중되고 이는 다시 기업 활동 위축 및 경기침체 가속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경우, 특히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음.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비상조치를 지역에서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역 기업과 시민들은 말하고 있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0.21(화) 10:15	류병노 의원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의 경색에 대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금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거래은행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 경색을 완화하고 요동치는 금융시장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현 시점에서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이 무너질 경우, 지역 경제는 회복 불능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임. 이와 함께,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동산·채권 등 담보특례법’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대구시도 정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임.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간 대기업들이 거래 중소기업에게 원가절감을 전가하거나, 지급결제를 미루는 행위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끝없이 고통 받고 있음. 대구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전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정부의 최근 조치들이 지역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시가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함.

Ⅵ. 本會議 傍聽 現況

區 分		計	1次 (10.7)	2次 (10.8)	3次 (10.9)	4次 (10.21)	
계	금 회	90		19	71		
	누 계	476					
학 생	금 회						
	누 계	41					
시 민 단 체	금 회						
	누 계	5					
일반인	금 회			19	71		
	누 계	430					

第174回 第2次 定例會

Ⅰ. 集會 및 議事日程 ····· 173
1. 集　會 / 173
2. 會期 및 開議日數 / 173
3. 議事日程 / 174

Ⅱ. 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 182
1. 接受現況 / 182
2. 處理現況 / 183
3. 主要議案 處理內容 / 186
4. 繫留議案 / 192

Ⅲ. 市 政 質 問 ····· 193
1. 質問現況 / 193
2. 質問內譯 / 194

Ⅳ.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 218
1. 請　願 / 218
2. 民　願 / 220

Ⅴ. 5分 自由發言 現況 ····· 221

Ⅵ. 本會議 傍聽 現況 ····· 239

開　會　辭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범일 시장님과 신상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새해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를 만들려고 첫발을 내디딘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2009년을 준비하는 제1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대공황 이래 100년 만에 찾아온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하면서 국가와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서민 가계에까지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난 4일 미국민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택한 오바마 당선자가 미국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규모 지원책을 검토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지역 제조업 총매출액에 28%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의 역량만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31일 정부가 발표한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은 미국발 금융 위기로 불어 닥친 경제침체와 맞물려서 그 파급력이 지방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현 정부의 약속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죽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10월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수도권 의회와 연대하여 지방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 스스로 차별화된 특화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우리 살길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대로 전망돼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아직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는 지난 8일,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하여 지난해 유치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2010년 세계소방관대회를 시작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세계곤충학회, 2013년 세계에너지 총회로 이어지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대구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글로벌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올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했고,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등 대구의 미래 성장을 선도할 크고 작은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한다면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있는 것은 전진이며 협력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우리 250만 대구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희망을 일으켜 살기 좋은 대구,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이겨낼 방안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튼튼히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미래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님께 위로의 인사를 전하며, 좋은 결실을 거두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고사장과 시험 관리를 위해 고생하신 신상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수험생들의 생활지도에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올 한해 추진한 시정을 총결산하고, 내년 계획을 점검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들이 부진한 이유를 밝혀내고, 대책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대구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적합한 사업인지,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적절한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를 두루 살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희망찬 2009년을 맞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시민보호와 더불어 폭설 및 한파 대책, 화재·산불 예방 등 동절기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年　11月　17日

大邱廣域市議會　議長　　崔 文 贊

Ⅰ. 集會 및 議事日程

1. 集　會

○ 집회요구자 :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 집회공고일 : 2008. 11. 7

○ 개　회　일 : 2008. 11. 17

○ 폐　회　일 : 2008. 12. 24

2. 會期 및 開議日數

가. 會期 : 38일(누계 : 358일)

나. 開議日數

○ 본회의 : 5일(누계 : 72일)

○ 위원회

區 分	計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小計	運營	行政自治	敎育社會	經濟交通	建設環境	豫算決算	其他
今 回	60	51	2	10	13	13	13	7	2
累 計	426	362	24	79	79	78	102	38	26

3. 議事日程

가. 本 會 議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11.17(월) 10:17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2次	11.28(금) 10:06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次	12.1(월) 10:07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5분 자유발언의 건
4次	12.12(금) 10:10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0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5.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8.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안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4次	12.12(금) 10:10	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7.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21. 2008년도 대구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次	12.24(수) 10:08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0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나. 委 員 會

○ 運營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1.18(화) 16: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2次	12.1(월) 15:00	1.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구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行政自治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1.19(수)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 포함) 소관
2次	11.20(목)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정책홍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3次	11.21(금)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시설관리공단 소관
4次	11.24(월)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통합전산센터(지산동 소재)
5次	11.25(화)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6次	11.27(목)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소방본부 소관
7次	12.2(화) 10:00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정책홍보관실
8次	12.3(수) 10:00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9次	12.5(금) 10:00	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次	12.15(월) 10:00	1.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 敎育社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11.18(화)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체육관광국(시 체육회 포함),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次	11.18(화)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여성국(어린이회관 포함) 소관
3次	11.20(목)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예술회관, 종합복지회관 소관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4次	11.21(금)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오페라하우스
5次	11.24(월)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구의료원, 여성회관 소관
6次	11.25(화)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여성문화회관
7次	11.26(수)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교육청 소관
8次	11.27(목)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시 교육청(지역교육청) 소관
9次	12.2(화) 10:00	1.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次	12.3(수) 10:00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1次	12.5(금) 10:00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次	12.15(월) 10:00	1.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13次	12.16(화) 10:00	1.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교육비특별회계

○ 經濟交通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11.18(화)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국 소관
2次	11.19(수)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교통국 소관
3次	11.20(목)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신기술산업국 소관
4次	11.21(금)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공사 소관
5次	11.24(월)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사)교통연수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次	11.25(화)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엑스코, 농업기술센터 소관
7次	11.26(수)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구신용보증재단,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8次	11.27(목)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대구테크노파크
9次	12.2(화) 10:00	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조례안
10次	12.3(수) 10:00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소관
11次	12.4(목) 10:00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12次	12.15(월) 10:00	1.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13次	12.16(화) 10:00	1.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 建設環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11.18(화)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녹지국 소관
2次	11.19(수)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디자인총괄본부, 도시주택국 소관
3次	11.20(목)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방재국 소관
4次	11.24(월)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관리본부 소관
5次	11.25(화)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6次	11.26(수)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시설공단 소관
7次	11.27(목) 10:0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구도시공사 소관
8次	12.2(화) 10:00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 소관
9次	12.3(수) 10:00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10次	12.4(목) 10:00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1次	12.5(금) 10:00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시계획과) 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12次	12.15(월) 10:00	1.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 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13次	12.16(화) 10:00	1.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도시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12.8(월) 10:00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2次	12.9(화) 10:00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교육사회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3次	12.10(수) 10:00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次	12.11(목) 10:00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次	12.18(목) 10:00	1. 200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次	12.22(월) 10:00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7次	12.23(화) 10:00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환경위원회 소관)

○ 尖端醫療複合團地誘致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12.4(목) 09:30	1. 업무보고 및 당면 현안사항 논의

○ 大邱慶北經濟自由區域支援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査　　案　　件
1次	12.5(금) 17:00	1. 활동계획안 채택

Ⅱ. 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1. 接受現況

○ 機 關 別

區 分	計	議會				大 邱 廣域市	敎育廳
		小計	議員	議長	委員會		
今 回	28	12	7	3	2	12	4
累 計	412	189	94	76	19	191	32

○ 種 類 別

區 分		計	條例				豫算決算	同意承認	建議決議	其他
			小計	制定	改正	廢止				
計	今回	28	15	3	12		5	3	1	4
	累計	412	220	54	157	9	28	52	11	101
議 會	今回	12	5	2	3			2	1	4
	累計	189	62	21	41			23	11	93
大 邱 廣域市	今回	12	8	1	7		3	1		
	累計	191	138	30	99	9	16	29		8
敎育廳	今回	4	2		2		2			
	累計	32	20	3	17		12			

2. 處理現況

가. 總 括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28	27	20	6		1	1
	누계	412	409	311	89	1	8	3
조 례	금회	15	15	11	3		1	
	누계	220	218	137	73	1	7	2
예산·결산	금회	5	5	2	3			
	누계	28	28	15	13			
도시계획	금회							
	누계	8	8	8				
동의·승인	금회	3	2	2				1
	누계	52	51	50			1	1
건의·결의	금회	1	1	1				
	누계	11	11	10	1			
규 칙	금회	1	1	1				
	누계	7	7	5	2			
기 타	금회	3	3	3				
	누계	86	86	86				

나. 本 會 議

區 分		附 議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26	26	20	6			
	누계	400	400	311	89			
조 례	금회	14	14	11	3			
	누계	210	210	137	73			
예산·결산	금회	5	5	2	3			
	누계	28	28	15	13			
도시계획	금회							
	누계	8	8	8				
동의·승인	금회	2	2	2				
	누계	50	50	50				
건의·결의	금회	1	1	1				
	누계	11	11	10	1			
규 칙	금회	1	1	1				
	누계	7	7	5	2			
기 타	금회	3	3	3				
	누계	86	86	86				

다. 委 員 會

區 分		回附							處理					繫留
		計	條例規則	豫算決算	都市計劃	同意承認	建議決議	其他	計	附議		不附議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22	16	5		1			21	14	6		1	1
	누계	293	227	28	8	30			290	193	88	2	7	3
운영	금회	3	3						3	3				
	누계	28	28						28	22	6			
행정자치	금회	5	5						5	5				
	누계	87	72			15			87	71	14		2	
교육사회	금회	5	4			1			4	3			1	1
	누계	59	52			7			58	42	13		3	1
경제교통	금회	2	2						2		2			
	누계	40	33			7			39	18	19		2	1
건설환경	금회	2	2						2	1	1			
	누계	50	42		8				49	25	22	2		1
특별	금회	5		5					5	2	3			
	누계	29		28		1			29	16	13			

3. 主要議案 處理內容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64	2009년도대구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예결위(공통)	○예산액 : 4,760,500백만원 ○전년도예산액 : 4,243,500백만원 ○증감액 : 517,000백만원	수정(12.11)	수정(12.12)
2965	2009년도대구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예결위(공통)	○운용액 : 101,060백만원 ○기정운용액 : 95,939백만원 ○증감 : 5,121백만원	원안(12.11)	원안(12.12)
2966	2008년도대구광역시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예결위(공통)	○예산액 : 4,618,000백만원 ○기정예산액 : 4,518,040백만원 ○증감액 : 99,960백만원	수정(12.23)	수정(12.24)
2967	대구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대현 의원 외 5인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 근거를 마련함.	원안(12.1)	원안(12.12)
2968	대구광역시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대현 의원 외 6인	운영	○1월중 연간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여 연간 회기운영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원안(12.1)	원안(12.12)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69	대구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종기 의원 외 5인	운영	○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안건과 긴급한 의원발의 건의안, 결의안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원안 (12.1)	원안 (12.12)
2970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자치	○ 직제개편(2008. 8.5)에 따라 소관부서명이 변경되었거나 조정된 위임사무를 개편조직에 맞게 조정함.	원안 (12.5)	원안 (12.12)
2971	대구광역시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자치	○ 행정안전부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목신설 및 변경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원안 (12.5)	원안 (12.12)
2972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자치	○ 여성회관 상담실에서 요보호 여성의 수용·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신설함.	원안 (12.5)	원안 (12.12)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73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자치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2008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운영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규정을 정비함.	원안(12.5)	원안(12.12)
2974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교육사회	○신설되는 실내게이트볼장 명칭을『성서실내게이트볼장』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무료로 함	원안(12.2)	원안(12.12)
2975	2009년도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교육감	예결위(교사)	○예산액 : 1,906,155백만원 ○전년도예산액 : 1,783,747백만원 ○증감액 : 122,408백만원	수정(12.11)	수정(12.12)
2976	2008년도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예결위(교사)	○예산액 : 4,618,000백만원 ○기정예산액 : 4,518,040백만원 ○증감액 : 99,960백만원	수정(12.16)	수정(12.24)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78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사회	○'09.3.1자 개교하는 11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일부 도로명주소로 미표기된 학교의 위치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원안(12.5)	원안(12.12)
2979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경제교통	○「주차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 조항 신설	수정(12.2)	수정(12.12)
2980	대구광역시어린이교통랜드운영조례안	시장	경제교통	○2006.4.11 준공한 어린이 교통랜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수정(12.2)	수정(12.12)
2982	대구광역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안	장경훈 의원 외10인	교육사회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원안(12.2)	원안(12.12)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81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건설환경	○상위법령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평균층수제도 도입, 건축물 용도분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서 용적률 완화조항 신설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함.	원안(12.5)	원안(12.12)
2983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성배 의원 외 9인	건설환경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의 건축을 대지의 접면도로 조건에 관계없이 허용함.	수정(12.5)	수정(12.12)
298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동희 의원 외 7인	본회의	○위원장 - 이동희 의원 ○부위원장 - 전성배 의원 ○위 원 - 김덕란,정규용 김대현,정순천 정해용 의원		원안(11.17)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85	대구광역시각종포상운영조례안	이재술 의원 외 6인	행정자치	○부서별로 산재되어 운영되는 각종 포상업무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포상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 포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안 (12.5)	원안 (12.12)
2986	대구광역시의회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	특위위원장	본회의	○활동기간 -'08.10.21～'09. 3.31(6개월간) ○유치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유치지원 협조요청 및 홍보강화 등 지역유치 활동에 노력함.		원안 (11.17)
2987	제174회대구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본회의	○'08.11.17～12.24 (38일간)		원안 (11.17)
298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본회의	○서명의원 - 김덕란,김대현		원안 (11.17)

議案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8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본회의	○위원장 - 지용성 의원 ○부위원장 - 나종기 의원 ○위 원 - 김덕란,김의식 정순천,권기일 박돈규,김대현 정해용,양명모 전성배 의원		원안(11.28)
299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지원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	특위위원장	본회의	○각종 지원과 투자유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함. ○활동기간 - 2010.6.30까지		원안(11.17)

4. 繫留議案

議案番號	議 案 名	上 程 日		繫留日	繫留事由
		委員會	本會議		
2737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		2007.8	
2926	대구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		2008.9	
2990	대구뮤지컬전용극장민간투자사업채택동의안	교육사회		2008.12	

Ⅲ. 市 政 質 問

1. 質問現況

가. 質問議員數 : 6名(累計 : 91名)

나. 質問件數

○ 對象機關別

區 分	計	大邱廣域市	敎 育 廳
금 회	8	7	1
누 계	153	144	9

○ 分 野 別

區 分	今 回	累 計
계	8	153
일 반 행 정		16
문 화 체 육	2	12
교 육	1	9
경 제 · 산 업	2	29
환 경 · 녹 지	1	10
상 · 하 수 도	1	4
보 건 · 복 지		6
교 통	1	22
도 시 계 획		14
건 설 주 택		25
소 방		1
기 타		5

2. 質問內譯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권기일	1.동촌유원지는 1965년 대구 최초의 유원지로 결정되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름다운 풍광과 맑은 물을 가진 70년대 영화 촬영장소와 관광명소로서, 그리고 대구의 랜드마크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침체의 길로 접어들어 지금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장소가 되었고 대구의 명물이었던 구름다리도 이제는 흉물이 되고 말았음. 동촌유원지를 활성화하여 대구시의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함. 첫째, 대구시 본청과 구청, 그리고 동구와 수성구로 이원화된 동촌유원지 관련 업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시아폴리스 조성, 신서혁신도시 건설, 경제자유	○동촌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은 동촌유원지 조성 중기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584억원을 투입하여 1981년 조선시대 대구읍성을 지키던 영남제일관 건립을 비롯하여 29개 노선 3,683m의 도로건설,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수상무대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음. 민간에서도 휴양 및 유희시설 등 총 98건 중 38건을 건립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 주차장, 도로개설, 인공폭포 등의 시설에 사업비 154억원을 투입, 대회이전에 완료 할 계획이며, 2011육상대회 이전 조성이 어려운 음악분수, 동촌숲, 생태원 등은 유원지 조성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동촌유원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시장) ○동촌유원지 업무 관련 조직의 일원화와 관련 현재 우리시 유원지 업무관련 추진체계는 시에서 조성계획수립 및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권기일	구역 등 대구의 주요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촌유원지 업무 관련조직을 일원화하여 동구만의 유원지가 아니라 대구의 유원지인 것처럼 대구시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둘째, 대구시가 2007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동촌유원지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를 2011년과 그 이후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동촌유원지가 대구의 관문이자 각종 국제행사의 숙박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함. 셋째,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이의	관할 구·군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 지역적 특수성과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무관련 조직의 일원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다각적 노력과 이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대책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회지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법률안이 국회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관련자료 제공과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설명, 자료제출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대회지원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1대회준비 인프라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국비지원금 확보를 추진하고, 가능한 한 동촌유원지 관련사업을 2011년 대회 이전에 기반시설을 포함한 관광사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음 대구도시공사의 역할과 관련,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는 공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유원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사에서 97~2000년 동촌강나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권기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넷째, 대구시는 지난 2008년 2월 대구도시공사가 관광·레저 개발 등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공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한 바 있음. 이러한 도시공사의 역할을 감안하면 아름다운 풍광과 풍부한 수변공간을 확보하여 개발의 잠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도사업이 없어 민간투자가 저조한 동촌유원지에 민간자본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동촌유원지를 활성화하여 대구시의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한 네 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루타운 421 세대를 건립하여 유원지에 난립하고 있던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바 있으며 국채보상기념공원 및 상리공원을 개발하여 우리시에 기부체납 한 바 있음. 향후 동촌유원지 기반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공사가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촌유원지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환경녹지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1.최근들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어 강수 일수는 감소한 반면, 호우 발생빈도는 증가하여 수자원의 질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양질의 수자원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합리적인 수자원 개발과 활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지표수 중심의 물 자원 이용과 관리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증가된 오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안전하고 풍족한 물자원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안전하고 잠재성이 큰 대체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고 있음.	○ 현재 우리시의 전체 지하수 개발·이용 공수는 4,701개소이며, 대단위 택지개발과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 이용공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구·군에 신고된 지하수 이용계획에 의하면 도시철도 1,2호선 주요 역사내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일일 총 18,319톤으로 조경용수 및 생활용수로 일부 사용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버려지는 도시철도 역사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여름철 도로복사열을 줄이기 위한 크린로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유출지하수를 중앙로 대중교통전용 지구내에 실개천 유지용수로도 활용할 계획임. (시장)
	낙동강, 금호강 등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질의 지하수를 확보하고 있는 대구시도 양질의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 보호·관리 및 이용에	○ 지하수개발 가능량 대비 지하수 이용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2006년 12월에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용량은 30%로 활용량이 적은것은 사실임. 지하수이용량은 구군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시점임. 그러나 대구시의 지하수 이용 및 관리 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대구시에서는 아직까지 지하수와 관련된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하수의 개발 및 보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양호한 수질의 지하수를 확보하고 지하수의 보전 및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의 정립 및 지하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첫째, 약 10년 전 개정된 대구시 지하수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지하수법과 연계가 가능하게 하고, 지하수 업무와 관련하여 광역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전면 개정해야 함. 둘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함. 지하수의 수질보호와 지하수	별로 차이가 많으므로지하수 보전에 힘쓰면서 지하수 이용량이 적은 동구 및 달성군은 지하수 개발을 적극 권장 하고 지하수 이용량을 초과한 중구, 서구는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이 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음. 8개 구,군 지하수 조례제정과 대구시 지하수 조례정비와 관련하여, 현재 지하수법에는 광역시·도에서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또는 지하수 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군에서는 지하수 관리위원회 운영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하수법 상 조례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구·군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조례제정 및 정비와 관련하여 부정적 요인이 많았던 만큼 관계전문가의 의견과 구·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 제정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고갈 및 지반침하, 오염 발생 등의 지하수 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보전 구역을 지정하여 이와 관련하여 지하수 보전 구역 선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셋째, 지하수 기초 통계 자료의 구축이 필요함. 지하수에 대한 세부 정밀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관측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측연보 발간 등을 통해 대구시 전체의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분석할 수 있는 지하수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인 관리 및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게 해야 함. 넷째, 지하철 유출수를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수질 조사 등을 실시하고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공원의 생태환경조성, 지하철역사의 유지관리용수, 신재생에너지자원, 냉각수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지금까지 우리시의 경우 136개 주요지점의 지하수 수질측정망 관측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반침하 또는 현저한 지하수 수위 변동 등으로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지하수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를 면밀히 다시한번 파악한 후 지정여부를 검토하겠음. 지하수 방치공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하수 오염저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전체 지하수 개발 이용공은 4,701개소이며 대단위 택지개발과 도심재개발 등로 인하여 2005년도 5,109개소 보다 지하수 이용공수가 줄어들었음. 2005년 공식적으로 집계된 우리시의 지하수 폐공이 1,218공이고 지하수 공에 대한 되메움 처리가 안된 16개 공은 현재 되메움 처리가 완료되었음. 또한 2005년 이후 작년까지 우리시 전체에 미처리된 방치공 246개공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였음. 지난 9월 국무총리실에서 수질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발표한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과 연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방치공을 신고할 경우 공당 5만원에서 8만원까지 포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그리고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 오염지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오염유발 시설에 대한 세부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이상과 같이 지하수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자원의 체계적인 축적과 분석, 지하수의 특성과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작성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시와 각 구·군에서도 방치공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방치공 찾기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또한 현재 136개인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2011년까지 240개로 확충하여 지하수 고갈 및 오염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토록 하겠음. (환경녹지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박정희	1.최근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 2만 4,867명 가운데 6,089명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만 7세~12세 사이 아동 1만 8,691명 중 2,887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가정의 수학비율이 낮은 것은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 등 교육비 부담가중, 가정불화와 학교에서의 따돌림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임.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연령의 자녀를 둔 외국인 자녀의 경우 자국인과 동등한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논란의 여부를 떠나서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짐. 교육청에서는 이주가정 자녀의 초·중등과정 학습권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다문화가정 학습권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 및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통해 전·입학 절차 등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더불어 일반시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노력하겠으며, 점차적으로 퇴직교원 활용 후견인제, 정식허가를 받은 민간기관의 한국어교실 운영,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 등의 교육 복지 지원에도 더욱 노력하겠음 참고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담임교사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시책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를 확대하여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넓히겠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장학자료를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박정희	또한, 이주민 가정의 자녀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자녀와 불법 체류자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학습권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 다음은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관련, 한국투명성기구가 전국 중·고교생 1,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 “나는 감옥에서 10년을 살더라도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항목에 무려 17.7%가 그렇다고 응답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음. 이처럼 도덕성이 결여되다 보니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화되고 집단화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만 해도 가해학생수가 2004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1,063명이며, 성폭력은 같은 기간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음. 이러한 학생들의 도덕성 결여와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사회의 도덕	12월중으로 발간하여 전 초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며,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거점학교』 지정·운영 등 활발한 교육 활동을 전개. 그리고 직속기관인 두류도서관 등에서도 자체 특색사업으로『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도우미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 및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울러 2009년부터는 대구교육발전협의회 과제로 선정된『대구다문화 네트워크 협의체』구축·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의 모습을 보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지식교육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임. 또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과 정보 통신 기술이 학생들에게는 유해한 환경이 되었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정교육이 약화되어, 사회 병리 현상인 학교 폭력과 성폭력, 개인이기주의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 시점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함.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창의성과,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요소인 도덕성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박정희	불감증과 황금만능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의 잘못된 세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교육의 존재감 약화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함. 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도덕성 함양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인지? 또한 초등학교시절에 평생 동안 인성의 바탕을 이루고 예절의 기본이 될 소학과 명심보감 등을 공부하게 하는 것은 우리 어른이 자녀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고 건전한 사회를 물려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은 대구시교육청의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 확보노력 부족과 관련, 최근 3년간의 특별교부금 중 현안사업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학교별 평균 3,1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를 포함한 7개 광역시 중에서 학교별 지원금액을 가장 적게 받았음.	갖추고, 글로벌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우고 여러 시책을 추진해 왔음. 주요교육시책인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을 위해 창의성 교육과 독서 교육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바르게 행동하는 생활인 육성'을 위해서는 바른 인성 함양의 첫 단계인 예절·친절·질서 지도를 강화했으며, 굳센 의지를 기르기 위해 학생문화센터, 해양수련원, 학생 집단 야영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 인성교육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음.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 확보 노력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별 교부액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며, 최근 3년간의 특별교부금 중 현안사업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학교별 평균 3천 1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를 포함한 7개 광역시 중에서 학교별 지원금액을 가장 적게 받았으며, 이는 전국 16개 시·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박정희	이는 전국 16개 시·도 평균인 4,400만 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고, 7,730만 원을 받은 대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현안사업비 지원이라는 것이 대정부 교섭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구시 교육청의 확보 의지가 타 시·도에 비해 그만큼 부족했다고 생각함. 보다 적극적인 현안사업비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평균인 4천 4백만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고, 7천 730만원을 받은 대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지방정부의 교육경비보조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대구시 교육청의 교육재정은 매우 취약한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과의 협의회 개최, 자치단체 방문, 지방의원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교육경비 유치 실적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등 교육경비 지원액과 범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또한, 1교 1사 자매결연을 통한 장학금 등 민간 경비 유치에도 노력을 하겠으며, 현안사업비 지원이라는 것이 대 정부 교섭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현안사업비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교육청 모든 간부들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안사업비 확보노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교육감)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나종기	1.대구시에서는 도심의 매력 있고 가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도심의 활기를 되찾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대문화공간 디자인개선사업,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읍성복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의 특정 건물이나 유적 또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보고나 조사 자료는 있지만 보존가치가 높은 고택 등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구 도심의 역사·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들 자원들을 연결시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도심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대구를 알리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의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이들 자원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대구 정체성 확립과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달성 토성 정비사업과 경상감영공원화 사업, 국채보상 운동기념공원, 2·28 기념중앙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 왔으나, 종합적인 문화유산 정비 및 관광자원화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앞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도심재생사업 기본구상을 토대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심·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중인「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방안을 수립하여 3대 문화권(신라, 유교, 가야문화권)중심도시인 대구가 관광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삼성상회 옛터 및 창업주 생가·고택등의 관광자원화 방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태동해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성공 신화는 중소업체에 꿈과 희망을 주고“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메이킹에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삼성상회, 창업주의 생가·고택 등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함. 이를 위해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기본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나종기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밑그림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특히, 산업화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기업들의 발상지와 창업주의 고택이 보존되어 있다는 장소성과 상징성에 주목하여 이들 자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뿐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은?	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중에 있으나 우리시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삼성, 코오롱 등 관계 기업의 동의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므로 우리시와의 협력관계 및 상호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가운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시장)
	2.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와 관련, 지난 2008년 4월 대구마라톤대회 개최 후 대구 도심을 가로질러 시가지의 동서를 순환하려던 당초의 마라톤코스가 시가지의 동쪽인 중구 일부와 총 마라톤 구간 42.195km 중 대부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변경 관련하여, 지난해 3월 대회유치 후 사전 점검 차원에서 2008대구마라톤대회를 엘리트대회로 격상시켜 2011대회 예정코스를 달려보았으나 도심구간의 오르·내리막이 많고, 종반부 35km지점의 심한 경사 등으로 참가선수들의 46%가 코스개선이 필요하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나종기	분의 구간이 특정 지역에만 치우친 새로운 코스로 변경되었음. 물론, 2011년 대회의 여러 종목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명소를 경유하여 대구의 좋은 이미지를 지구촌 곳곳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라톤코스의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치우친 이러한 변경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특히, 변경된 코스는 대구에서 비교적 가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가로 정비가 불량하고 지역 개발이 더딘 낙후된 지역에도 코스를 설정하여 대구시가 계획 중인 마라톤코스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지? 현재의 계획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모두 동일한 지점인 대구스타디움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출발점은 두류공원으로 도착점은 대구스타디움으로 하는 등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도시철도 3호선 공사구간과의 중복(8.3km)으로 TV 중계방송 장애구간 발생이 예상됨. 이와 같은 문제 해소하기 위한 코스 변경은 대한육상연맹, 전문대행사 등 전문가로 2011조직위 마라톤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08. 6. 2)하여 도심순환 및 경북 일부지역을 포함한 4개의 코스를 대상으로 IAAF 규정 준수여부 및 현장실사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음.(08. 7. 2) 새로 변경된 코스의 특징은 종전 코스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경사도가 완만하여 선수들의 기록 향상과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들안길, 국채보상공원 등의 명소를 경유하게 함으로써 선수들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응원은 용이하나, 대회코스 통과 지역이 수성구와 중구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임. 마라톤코스 설정의 애로 사항으로는 대구스타디움외에 적정한 스타트 및 피니시 장소 부재로 코스 유형은 대구스타디움에서 출발·골인하는 순환코스로 제한됨. 마라톤코스 출발점을 두류공원으로 하는 것은 대구스타디움의 고도차가 50m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나종기	출발점과 도착점을 달리하여 대구의 다양한 모습을 세계에 홍보하고, 동원에 의한 시민참여가 아니라 자연적인 군집에 의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정도로 IAAF 코스설계 A등급 규정에 저촉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2011대회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기록향상, 선수참여 확대 등 대회 내용도 중요하고 오랜 염원으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인 만큼 소외지역 없이 범시민 축제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시가지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코스 설정도 중요한 사안임. 2009대구국제마라톤대회를 통하여 변경된 코스 점검 및 IAAF 관련 규정 분석과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합리한 경우 코스 조정을 검토하겠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3.서대구화물역 부지 매입 및 활용방안과 관련, 타 구·군의 개발계획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고 대구시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37억원에 이르는 부지 매입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계획과 장래 개발방향에 대한 견해는? 대구광역권전철망사업을	○서대구화물역 부지매입 및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서대구화물역은 대구시·철도공사·민간인 등 24명의 주주가 제3섹터 법인인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을 설립하여, 추진 도중 시공업체인 (주)청구의 부도로 2006. 3월 사업이 취소 결정되고, 현재 법인청산 진행 중에 있음. 대구경북연구원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대구화물역은 물류시설로는 물동량 부족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나종기	통한 서대구화물역 활성화 방안과 관련, 서대구화물역사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계획이 표류 중인데 대구광역권 전철망 서부역사 건립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계획의 수립과 함께 조기 건립할 의향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칠곡, 성서와 서구 시민들의 출·퇴근을 위한 서부역사 건립을 통한 대구광역권 전철망을 연계하고, 창고형 할인매장, 전문도매상가 및 의류할인매장 등 소비유통단지와 철도와 버스를 연계한 환승복합센터를 설치하여 낙후된 서구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로교통 체증 해소 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나타났으며 우리 시에서 대구광역권전철망 사업추진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 타당성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2008.12월)에 따라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대구광역권전철망 사업을 통한 서대구화물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도 국토해양부의 대구광역권전철망 구축사업 용역결과,타당성 있음으로 결론나면 서대구화물역 부지를 전철역 서부역사 건립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로 침체된 서대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에 따른 서대구화물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방안과 관련하여, 지금 「동대구 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승센터는 열차·지하철·버스·승용차 등 교통수단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현재 「국가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향후 시행령이 제정되면, 서대구지역의 교통여건과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환승센터 건립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교통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류병노	1.금융위기로 국가전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던 지난 4월과 비교하여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은 연일 급변하고,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 250개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 실시한 2008 지역기업의 금융애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급등, 경기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자금사정이 나쁜 기업이 그렇지 않는 기업보다 8배 많았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 확대가 49.5%로 가장 시급하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개선이 48.4%, 대출절차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가 35.5%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내년에는 건설과 조선외에 지역과 관련이 깊은 유통, 반도체, 자동차 등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도 동시에 나빠	○지역기업의 유동성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한국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업종별 자금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시로 지역 기업체 및 상공단체들을 대상으로 업황 및 자금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등 유동성 지원 대책을 위한 실태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지역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市에서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의 시설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자금은 당초 4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20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금까지 127개 업체에 6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스타기업이나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벤처·이노비즈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4%의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최근 시중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소극적 기업대출 관행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대출금 만기연장 원자재 구입자금 적기 지원, 설비투자 대출 확대 등 지역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류병노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며, 국내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의 유동성 악화는 결제 지연과 납품단가 인하로 지역 중소기업의 악화로 직결될 것임. 이와 관련 대구시에서는 지역기업의 유동성 위기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대구시는 지역기업의 유동성 고갈 현황에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기여도가 높은 기업부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되어야 함. 지역기업의 유동성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현황과 이자비용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며, 지역 기업 중에는 우수한 인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에 처한 기업이 있을 수 있음.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고 있음. 이러한 대책 이외에도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견실한 중견기업들을 위해서는 주채권기관과 금융당국 등을 대상으로 해당기업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에서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지역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높은 실업률에 따른 민생안정 방안과 기업지원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연계와 관련하여, 우리 市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서민생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6개 분야 34개 과제를 선정하고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2009년 서민생활 안정화 종합대책」을 지난 11월 18일에 발표하였음. 본 대책 중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는 총 5개 분야에 47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이러한 일자리 창출대책 이외에도 기업이 정부와 市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고용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가겠음. 이와 더불어 지역 경제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류병노	이와 관련 지역기업의 유동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들 기업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방안은? 또한 높아가는 실업률이 지역민생을 더욱 악화시킬 텐데, 대구시가 현재의 민생 안정화방안으로 민생을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는?	있는「1社1人 추가고용하기운동」이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채용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또한,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일자리 유지 및 신규 창출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1.재래시장정비사업과 관련, 대구시에는 등록시장 86개, 인정시장 23개 등 총 109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시장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이 절실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상업기반시설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시장 등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구시는 신천 자연경관보호를 핑계로 사업성 없는 층수를 강요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면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법에 근거도 없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것이 사실임.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보장하고자 한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도시	○ 재래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에는 8개 지역이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조합원간 의견일치의 어려움과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시장정비사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우리시 관내 동부시장의 경우 시장재건축을 위해 2004년 8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선정되어 2006년 2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통한 재건축을 위해 중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음. 또한, 2008년 5월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결과, 보완할 사항이 있어 재심의 하기로 결정되어 12월 중으로 재심의 할 계획임. 도시계획시설 또는 용도지역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은 신천변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주요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 도출에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시장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요금인하 및 위탁실태 개선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주변에는 총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미관을 이유로 유보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음. 다음은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정책과 관련,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시장 재정비사업과는 별도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상인회나 재래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타 자치단체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시간 주차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하고, 심지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보다 저렴한 주차요금을 책정하거나,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등에 위탁할 용의는?	4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5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주변 주차장에 대해 2001년부터 주차요금을 50% 할인하여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주차장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건설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시 구·군에서 상인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 사업비로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위탁관리토록 협의해 나가겠음.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고객의 요금을 상인이 부담하는 주차쿠폰제 실시, 공영주차장의 위탁 등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개선 및 운영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시장)
	다음은 SSM과 관련, 대구시는 2006년 12월 4차순환선 내에는 대형	○SSM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SSM(super super market)은 통상 1,650㎡~3,000㎡ 규모의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마트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대형마트 규제지침을 마련한 이후에만 대형마트 대신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장면적 3,000㎡ 미만의 슈퍼슈퍼마켓이 14개 업체나 생겨났음. 이를 더 이상 방치하면 지역재래상권이나 골목상권이 잠식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자금이 역외 유출되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생각하는데, SSM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서 첫째로, 재래시장 상품권에 다양한 용도를 첨가시킬 것을 제안하며 두 번째로, 재래시장의 경우 현금 사용이 빈번함을 감안해 현금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동사은품제도를 도입해 시장번영회 등에서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함.	슈퍼마켓을 통칭하고 우리지역에는 외지의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SSM은 15개가 있으며 대기업의 유통업계 1위 선점경쟁과 함께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당면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 소규모 슈퍼마켓의 공동구매지원, 물류비용의 절감, 유통단계의 축소 등을 위해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08년 4월 개장한 바 있으며 전통시장의 상권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대규모점포의 입점규제 등을 시행하였으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대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살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는 특성화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그 동안 대형유통점의 범람 속에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제18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영업품목 및 시간제한, 개설허가제 도입, 개설 영향평가 등을 통해 대형마트 및 SSM을 규제하고자 하는 7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세 번째로,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각 구청과 협의해 재래시장 재활용봉투 도입을 검토하실 의향은? 네 번째로, 쇼핑의 편리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래시장의 입·출구에 카트를 설치하고 무료포장 대행 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재고·이월상품을 할인판매를 할 수 있는 공동할인판매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카드결제의 경우, 국세청, 카드결제사 등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재래시장을 전통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방안과 관련, 20세기 최고 지성 프로이드는 축제의 기원을 난장트기에서 찾고 있으며, 대구가 지금껏 성장한 배경은 바로 난장이며 대구는 이미 500여 년 전에 장이 설 때면 전국에서 상인이 모여들고 상품이 모여	우리시는 지역의 총체적 역량 결집을 통해 어려운 영세 소상인들이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령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임.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템 개발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정책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특히, 쇼핑의 편리성과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시장의 각 상인회 대표로 구성된 대구시 상인연합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상인의 의식개혁과 시장의 여건을 감안한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하겠으며 전통시장 재사용 종량제봉투 도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판매소를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음. 그리고 카드수수료 인하문제는 2007년 11월 업종별로 0.7%~1.8%까지 기 인하된 바가 있으며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계속하여 건의하고 있음. 서문시장을 복원해 난장을 열고 난장의 수많은 문화자원을 되살려 전통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구청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들고 장을 따라 즐기는 사람이 모여들었음. 게다가 약령시는 한 때 우리나라 한약재 집산지로서 한약거래를 주도하기도 했음. 이렇듯 대구는 한마디로 난장의 도시임. 이렇게 대구 곳곳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난장을 튼 결과 지역의 큰 장인 서문시장은 조선을 거치면서 전국 3대 장으로 성장했으며, 한때 대구경제의 절반이 서문시장에서 나온다고 할 만큼 전국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대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음. 서문시장은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전통문화유산으로 복원이 가능한 현존하는 최고·최대의 시장이며, 사라진 전통을 복원해 난장을 열고, 과거 난장에서 펼쳐진 수많은 문화자원을 되살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경쟁력 있고 세계적인 문화자원이며 훌륭한 축제자원이라고 생각함.	주관으로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음. 야시장은 기 추진 중인 아케이드설치, 전주지중화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는 '10년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며 난장트기는 야시장과 연계해 전통시장을 복원할 수 있는 좋은 문화자원이라 생각함.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 행사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전통적인 난장의 모습들을 되 살려 기존의 관행적 축제의 모습에서 탈피해 의미가 담긴 난장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국제통상국장)

Ⅳ.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 請　願

가. 接受現況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1	1				1	
累 計	5	5	1			4	

○ 分 野 別

區 分	計	保健衛生	上下水道	道路交通	環 境	都市計劃	其 他
今 回	1						1
累 計	5			2		1	2

○ 委員會別

區 分	計	運 營	行政自治	教育社會	經濟交通	建設環境	特別
今 回	1					1	
累 計	5				1	3	1

나. 處理現況

○ 總　括

區 分	接受	處理	處　　理　　內　　容					未處理
			處　　理			不採擇 不受理	撤回	
			議會서 處理	市長이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1	1		1				
累 計	5	5		3		2		

○ 委員會 審査結果

區　分	回　附	附　議　與　否		未 處 理
		附　議	不 附 議	
今　回	1	1		
累　計	5	3	2	

○ 本會議 審査結果

區 分	附 議	採 擇 與 否		處　理　方　法			繫 留
		採擇	不採擇	議會서 處理	市長이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1	1			1		
累 計	3	3			3		

2. 民　願

가. 接受現況

○ 分 野 別

區分	計	經濟産業	教育文化	保健福祉	環境綠地	都市計劃	交通	建設	上下水道	其他
今回	24	2	2	1		7	4	5		3
累計	290	14	21	8	13	73	47	68	7	39

○ 地 域 別

區分	計	中區	東區	西區	南區	北區	壽城區	達西區	達城郡	其他
今回	24		3	2	6		5	2	3	3
累計	290	28	31	10	40	36	67	30	28	20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24	16	12		2	2	8
累 計	290	219	126	13	27	53	71

나. 處理現況

區 分	計	處　理			
		處理	不受理	取下	他機關移送
今 回	24	24			
累 計	290	279	2	3	6

Ⅴ. 5分 自由發言 現況

가. 分野別 內譯

區分	計	一般行政	經濟産業	文化體育	保健福祉	環境綠地	都市建設	交通	上下水道	其他
今回	4		2					1		1
累計	25	1	8	1	2	2	4	3		4

나. 發言要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1.17(월) 10:20	박부희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의 적극적인 추진과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학업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함. 먼저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조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함. 지난 5월 26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음. 이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되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임의기구에 불과했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정기구로 운영하도록 하였음. 또한 특수교사의 학급당 배치기준을 교사 1명당 학생 4명을 기준으로 시·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1.17(월) 10:20	박부희 의원	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이 배치기준의 4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배치하도록 하였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치료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국가면허나 국가공인의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치료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된 지 이미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단위학교·학급별 교사의 충원이나 교실 설치는 학교에 따라 아직도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많이 있으며, 또한, 전문치료사에 대한 확보노력 역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아주 제한적인 시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학교단위에서의 확보계획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장애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장애학생의 평생을 좌우하는 만큼 특수교사 및 전문치료사의 확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학급증설과 특수교육시설의 확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장애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양질의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타 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다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외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업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급식조차 제공받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1.17(월) 10:20	박부희 의원	학생이 당당하게 수업료를 내고 공부하고 급식비를 내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저소득층 학부모가 1년 학비의 범위내에서 학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함. 또한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방과후 학습의 자유수강권 제공대상자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주기를 부탁함. 그리고 방과후 학습과목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학, 영어 등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은 물론이고 피아노, 미술, 컴퓨터, 태권도 등 특기 적성교육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학습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학년별 교과과정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를 다하여 줄 것을 부탁함. 아무쪼록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들과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켜서 대구시 교육정책이 교육의 평등성과 숭고한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환경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드림.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1.17(월) 10:25	김의식 의원	○대구시가 10년째 추진 중인 자전거 도로의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서울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도시외곽에서 도심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전 지역 간선도로에 전용도로를 만들기로 했음. 그리고 자전거공원도 만들고 인근유적지등과 연계하여, 문화와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인근 창원시는『자전거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시청 내 자전거 문화담당을 신설, 전국90여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자전거 명품도시 창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대전광역시는 차로(선)의 수는 그대로 두면서 그 폭을 줄이는 도로다이어트를 실시하여, 주요 간선도로 9개 노선에 88.5㎞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음. 그런데 대구시의 현 상황은 1995년 이후 13년 동안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닦아 놓았다는 자전거도로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움. 이유인즉 대구시 자전거도로의 73%가 인도겸용으로 기껏 선하나 그어 놓고 이쪽은 보행자, 저쪽은 자전거가 다니도록 해 놓았으니 불법 주정차, 노점상과 불법적치물, 보행자 등이 얽혀 난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과 연계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자전거 주차장조차 없다는 점 등은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예산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1.17(월) 10:25	김의식 의원	낭비한 대표적 실패사업 중 하나로 밖에 볼 수 없음.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앞서 열거한 타도시의 우수사례들을 파악하여 우리 지형과 교통 흐름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함.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내 여러 곳으로 분산된 자전거 관련사업 부서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획일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또한 시민들의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면서, 자전거 관련 이용실태를 처음부터 새로 파악하여 대구시 자전거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 하여야 함. 그렇게 많은 대구시의 행사나 축제 중 자전거와 관련된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신설되는 도로나 문화유적지등에도 자전거도로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모습은 별로 발견할 수 없음. 이제 대구시는 시민의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줄 수 있으며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모든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자전거 정책을 더 이상 간과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대안을 수립하여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1(월) 12:40	정규용 의원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 주소표시체계는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작성한 토지대장에 근거한 것으로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이었음. 이와 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 빌딩, 공장 등의 건물 고유번호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 통신의 불편,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 사회·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어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도입하였음. 새주소사업은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추진한 사업 중 일부가 법령체계와 맞지 않아 주소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이 미흡하거나 법적주소로 전환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부에서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에 새주소사업 도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아파트, 건물 신축시 토지지번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1(월) 12:40	정규용 의원	○방식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새주소사업의 문제 해소를 통한 조기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첫째, 지금이라도 기존 새주소사업의 허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기준을 토대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은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임. 둘째, 남녀노소 새주소 사용의 효용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정부의 섬세하고 치밀한 홍보를 위한 예산과 인력확보가 필요한 시기임. 셋째, 새 주소에 등장하는 골목길, 소로까지 포함하여 비슷비슷한 도로이름만으로는 어디가 어딘지 쉽게 구분하기 어렵고 도로의 수가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많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넷째, 새주소사업의 정착을 위해 대구시에서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를 타 시·도에 앞서 새주소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대구가 새주소사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 대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바라며, 市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촉구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12(금) 10:15	이동희 의원	○범안로 민자도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지난 2007년 1월 22일부터 13개월간에 걸쳐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범안로 문제를 심도 있게 실태 조사하여 제16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범안로 문제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강력한 해결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함. 의회에서는 범안로 민자도로 매입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시정촉구사항으로 재정지원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범안로의 교통량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액 잠식된 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을 10%이상 유지하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대구시에 재정손실을 끼친 용역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대구시가 발주하는 각종용역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대구스타디움 인근개발과 도시철도3호선 연장,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을 대비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한 수익의 창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민간사업자와 조속히 범안로의 운영권회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대구시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여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대구시에서 의뢰한 사업분석용역 결과에서도 대구시의 재정지원금이 2011년 153억원에서 2016년 301억원, 2021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12(금) 10:15	이동희 의원	489억원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향후 4,423억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08억원을 투입하여 일시 매입하는 것이 대구시에 유리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지만, 시 재정여건과 민간사업자의 동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시 매입이 어렵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음.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와 그동안 4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대구시는 실시 협약 후 변화된 교통수요 예측상황을 감안하여 실시협약변경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수준에 그쳤고, 사업자 측에서는 타 민자사업에 미칠 영향으로 실시 협약 변경에 출자자인 맥쿼리의 동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만 되풀이함. 대구시는 범안로 운영권 회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의 결정권을 가진 사업자와 직접 협상을 시작하고 사업자가 끝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시는 민투법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몰수)의 법리적 충족여부와 협약 제54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자와 협약변경 협의 불가시 취할 수 있는 단계적 후속 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안로의 운영권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좀더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12(금) 10:20	김영식 의원	○한국델파이 지분매각과 관련, 대구시의 정책적인 접근을 촉구하고자 함. 한국델파이는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대구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1,600여명의 직원을 둔 국내 100대 자동차부품업체이며, 자동차부품산업 고용의 12%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종사자만도 5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구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2006년 매출액 1조 1,181억원 중 대구사업장의 매출액이 전체의 70% 정도인 7,827억원으로 이는 지역 전체 제조업의 3.7%, 자동차부품의 23.7%를 차지하는 금액임. 이렇듯 지역 대표 기업인 한국델파이의 장래가 기업 소유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전반이 흔들리는 불안한 처지에 직면해 있어 지난 2년간 대구시의 역외기업 유치노력이 한국델파이 상황에 따라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1조원 기업을 유치한다는 각오로 한국델파이 문제에 대처해야 함. 현재, 대우자동차의 청산절차 마무리를 위해 대우자동차청산법인 소유의 한국델파이 지분 매각이 추진 중으로 주주 간 매각 방식 및 실사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분이 매각되면, 한국델파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상황과 인수기업의 장기계획에 따라 본사나 공장이 수도권 등지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역에는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분 중 50%를 가진 미국델파이사가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12(금) 10:20	김영식 의원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델파이의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매각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의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음. 만약, 공장별로 분할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은 현재보다도 더욱 취약한 하청구조로 재편될 것이고, 회사가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엔 지역의 협력업체가 함께 빠져나가 기업과 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이전되지 않더라도 한국델파이의 지분 매각 자체만으로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해고사태 등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음. 특히, 대구지역은 오랫동안 경제침체로 인한 고용악화,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가 지역발전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인 상황임. 그런데 지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한국델파이가 분할매각 될 경우, 매출감소, 구조조정,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심화,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회피 등으로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한국델파이의 고용축소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대규모 도산, 제조업 공동화 등으로 지역고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지역민의 생계 역시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 더구나,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나라도 자동차업체들이 조업단축에 들어가는 등 자동차산업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어, 한국델파이 매각을 서두를 경우,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12(금) 10:20	김영식 의원	헐값에 투기자본에 매각되어 극단적인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매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 시점에서 대구시는 한국델파이 인수기업에게 역외대기업의 유치와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지원을 시행하는 정책을 천명하고, 한국델파이 본사 뿐 아니라,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백 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대구지역에 인수기업의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한국델파이 국내 지분 매각은 노사와 협력업체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인 만큼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임. 건전한 기업이 한국델파이 국내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델파이 경영진과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기업 유치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한국델파이의 매각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24(수) 10:10	박돈규 의원	○최근 대구시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구체화되고 있는 교도소 입지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지 선정을 위한 재검토와 함께 법무부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구경꾼에 불과한 대구시 행정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화원읍은 지난 1995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어 인구 밀집지역으로 변모하였으나 대구교도소 주변 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왔을 뿐 아니라 재소자와 관련한 수많은 시위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어 도시 외곽지로의 이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대구교도소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전지를 정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거듭해 오다가 그나마 2008년 5월 달성군 하빈면 주민들이 대구교도소를 하빈면에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구교도소 이전 유치 건의서를 대구시에 제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음. 그 결과 대구교도소의 구체적인 입지가 가시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국가 예산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확정하고 대구교도소 이전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위해 2009년 정부예산에 용역비 2억원이 반영되었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24(수) 10:10	박돈규 의원	이처럼 대구교도소 이전 작업이 급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달성군 하빈면 주민들의 지역발전 대안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유치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일임. 하빈면 주민들은 교소도 유치가 분명 내키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어 너무나 낙후되었기 때문에 도로, 교통, 인구증대와 그린벨트 해제 등 생활편의시설 개선의 희망으로 스스로 제 살을 베어 바치는 고육지책을 택하기로 결정한 것임. 이 같은 심정을 감안한다면 대구광역시는 하빈면의 대구교도소 유치가 하빈면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선도사업이 되어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하여 보답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임. 하빈면 내의 교도소 이전지역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감문동은 화원교도소의 입지여건과 같이 하빈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준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하빈면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음. 또한, 지역의 교육시설인 달서중학교와 달서고등학교고 인접하고 있으며 낙동강이 인접한 천혜의 청정지역일 뿐만 아니라 600여 년 이상의 유교문화와 관련한 가치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이 살아 숨쉬는 등 하빈면 내에서도 개발과 보존의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24(수) 10:10	박돈규 의원	대구교도소를 하빈면으로 이전하려고 한다면 현실과 가까운 장래를 보고 하빈면 외곽지역의 야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임.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교도소 부지만 해당되기 때문임. 낙동강이 개발되면 대구의 서북부권 발전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서북부 지역의 성서5차공단과 죽곡지역이 개발 완료되면 문양역도 인근의 왜관역, 성주와 김천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연장도 구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 경북의 동반 발전을 위하여 하양과 경산의 도시철도의 연장하듯이 서북부권도 연구 검토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일부 필요한 것은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도시 인근의 농경지와 함께 전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유교문화를 관광 자원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마을, 영화촬영지, 낙동강 개발로 위락시설을 유치하는 등 개발 발전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 안타까운 하빈면민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교도소 이전에 따른 보답이요, 도리이고 순리임. 끝으로, 교도소 이전지 입지 신정에 신중한 재검토와 함께 하빈면의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 입지선정을 주도해 나가길 다시 한번 촉구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24(수) 10:15	양명모 의원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대구시는 지난해의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와 더불어 2013년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하였고, 300만 평 국가공단을 조성계획을 완성하는 등 많은 시정의 발전이 있었고 이러한 점은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다고 생각함. 그러한 반면 우리 지역은 16년째 GRDP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공무원의 대내외적인 청렴도가 하위에 머무는 등 정말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통탄해야 할 그러한 일도 있었음.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인사정책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청함. 이제까지 지연, 학연, 혈연, 어느 지역 출신, 어느 고등학교 출신, 이러한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다니게 해서는 안되고, 업무 능력과는 관계가 없이 연공서열에 따라 시간만 지나면 승진이 보장되는 이러한 제도, 이제는 재고해야 함. 주무부서가 차기승진의 1순위가 되는 관례 또한 재고되어야 함. 이와 더불어 발탁인사를 통해서 대구시 시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함. 이번 새해 예산안, 그리고 추경을 하면서 예산안에 있어서 새는 돈이 많으며 모든 사업들이 백화점 식으로 나열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24(수) 10:15	양명모 의원	○되어 있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이 고루고루 갈라져 새어나가는 것을 발견하였음. 대학교수가 정돈된 논리로, 정돈된 학문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와주고 새로운 기업인이 대구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토호세력과의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끊어 대구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기를 부탁함.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대구시의 거창한 미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보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시민들의 피부에 맞닿아가는 절실한 사업부터 실시해 주기를 부탁하며, 며칠 전 언론에서 공기업의 성과급 과다지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실제로 공기업의 변화, 개혁,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엄청스럽게 요구해 왔지만 이제까지 낙하산 인사가 개선된 것도 없고,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지를 어느 행정 한 곳에 표현한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 2006년2월19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해서 그 전의 연도까지 126억원이 지원이 되던 재정지원금이 재작년도에 4134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7년도에 560억원이 지원이 되었음. 2008년도에 약 78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예산으로 880억 원이 계상되어 있음. 물론 교통복지라는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이러한 선행정의 목적이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12.24(수) 10:15	양명모 의원	○있지만 지금의 대구시의 재정 상황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는 개선과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임.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현재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대구시는 상당히 그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그 논리가 참 궁색함. 지금 부동산이 경기가 없다고 그러한 순수한 서민들의 주거환경의 개선의 욕구를 우리 대구시는 철두철미하게 묵살하고 있음. 그것도 일부 학자들의 독단적인 논리, 편협된 논리에 근거해 대구시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생각함.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 공무원들,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을 누구와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대구시에서 버젓하게 간부로 계속해서 승진해 가는 한 대구의 희망은 없을 것임. 대구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뀌지 않는 한 대구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없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선도적인 역할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해 줄 것을 요청함.

Ⅵ. 本會議 傍聽 現況

區 分		計	1次 (11.17)	2次 (11.28)	3次 (12.1)	4次 (12.12)	5次 (12.24)
계	금 회	4	1	3			
	누 계	480					
학 생	금 회	4	1	3			
	누 계	45					
시 민 단 체	금 회						
	누 계	5					
일반인	금 회						
	누 계	430					

議政報告書〈第50號〉

（第171回~第174回）

발행일 : 2009년 3월 일
발행처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전화 :(053)803-5053
FAX :(053)803-5046

〈비매품〉